

# 海清堂

4

2538년 겨울



송광사불교전문강원



## 답답한 송광사 중으로 남고 싶습니다

**송** 광사에는 TV가 없습니다. 종무소에 한 대 있던 것마저 지난해 치워버려서 명절이면 강주스님 눈치봐 가며 보던 비디오도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송광사에서 바깥 소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매체는 종무소로 오는 신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속사에 관심 있는 몇몇 스님의 일이고, 거의가 신문마저 끊고 살다 보니 가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번은 이읍(송광면 소재지)에 일을 보러 갔다가 지서 앞을 지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경찰 아저씨가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떨떠름해서 지나가는데 '스님, 나 좀 봅시다.' 하고 부르더니 '어느 절에 사느냐,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는 등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피의자를 대하는 듯했습니다. '송광사에서 면사무소에 불일이 있어서 왔다.' 며 주민 등록증을 보여줬더니 그제야 의심이 가는지, 사실은 서해안에서 침몰한 여객선 선장이 스님으로 변장을 하고 도피 중이라는 첩보가 있어서 검문하게 되었다고 변명 비슷하게 늘어놓는 바람에 서해안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수백 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보니 만행 중에 객방에서 스님들끼리 이야기판이 벌어지거나 신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한 송광사 중' 이란 말을 듣기도 합니다. 경허 스님 말씀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남이 볼 때 숙맥같이, 병신같이, 병어리같이 지내면 망상이 절로 없어질 것이다. 세상일을 똑똑히 분별하더라도 그것은 똥덩이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는 것 같아서 마음 닦아 성불하는데 전혀 쓸데없는 것이니 세상일을 잘하려 하지 말라' 는 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송광사에도 뉴스 시간에 라디오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무대 비리와 서의현 총무원장의 삼선 기도로 벌어졌던 조계종 사태는 절해고도로 느껴졌던 송광사에도 일파만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개혁에 앞장섰던 스님들의 노고와 사부대중의 참여 덕분에 개혁 작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새로 개정된 종헌 종법에 따라 새 종회가 구성되고, 총무원장 스님도 새로 모시게 되어 조계종단이 오랜만에 안정 속에서 수도 정진할 계기를 마련한 듯 합니다.

부디 새해부터는 사부대중 모두가 부처님을 따라 마음 밝히는 공부와 자비 베푸는 일에만 전념해서 다시는 송광사에서 라디오 뉴스가 울려 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海清堂



2538년 겨울



해청당 제 4 호

발행처 / 송광사 불교전문강원

발행인 / 승국(입승)

발행일 / 2538년 12월 31일

고 문 / 지운(강주)

편 집 / 회일 보원 도선 한운 설주

사진 삽화 / 한운

주 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0661)53-2133

인쇄소 / 도서출판 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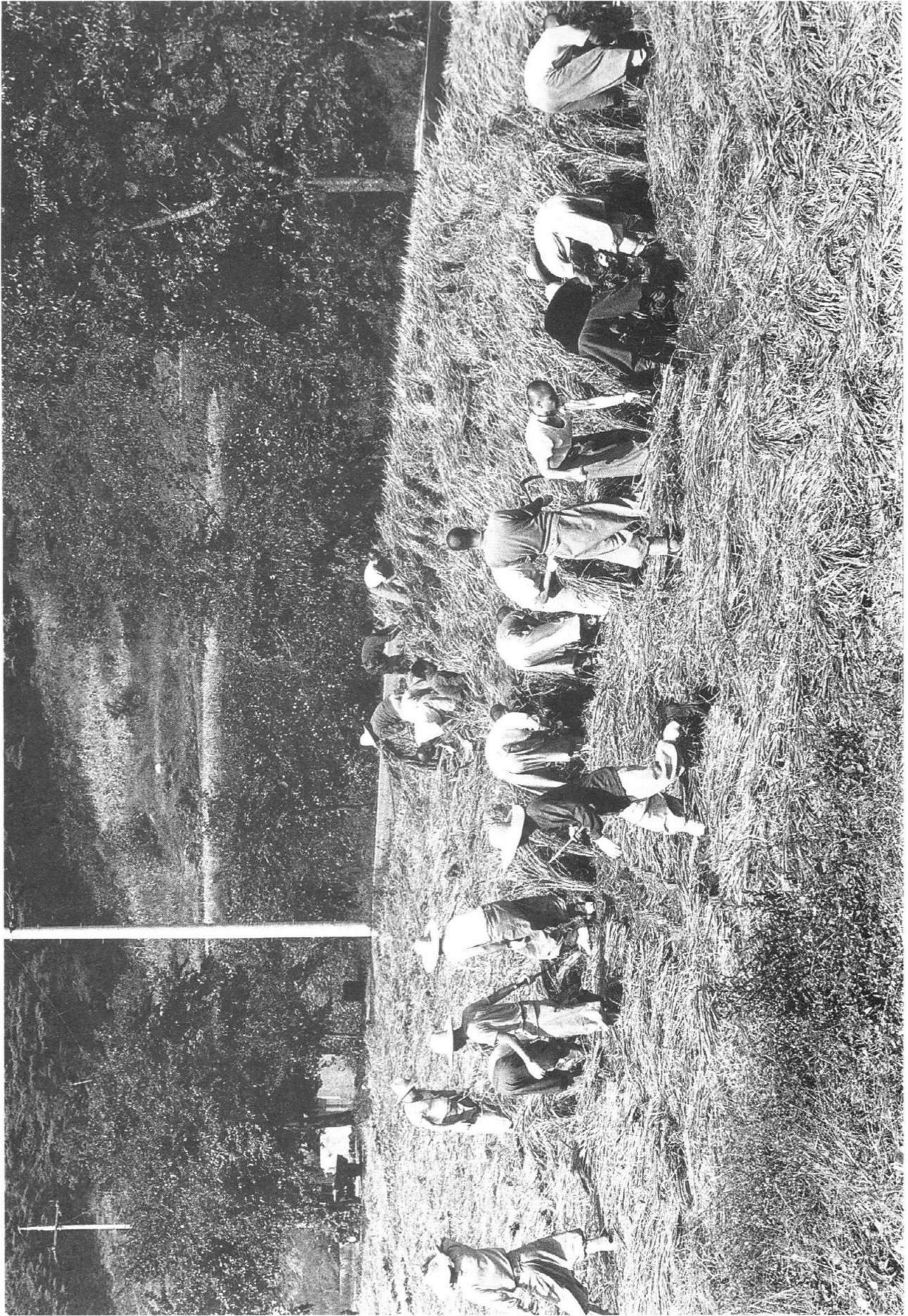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 서석동 62-1

(0661)232-6702

## 차 례

|         |    |                          |    |
|---------|----|--------------------------|----|
| 조계의 물소리 | 2  | 답답한 송광사 중으로 남고 싶습니다      |    |
| 포토에세이   | 4  | 울력                       | 자공 |
| 기획대담    | 6  | 송광사 도량 수호신, 계룡 노스님       | 보원 |
| 시       | 11 | 回家鄉                      | 승국 |
| 신문      | 12 | 해탈아 다음 생엔 사람몸 받아라        | 지행 |
| 시       | 15 | 도류들                      | 회일 |
| 신문      | 16 | 송광사 종소리                  | 하일 |
| 신문      | 18 | 해애(解碍)에 칼질을!             | 정묵 |
| 편지      | 21 | 수덕사 아이들에게                | 한운 |
| 화보      | 22 | 화보로 본 강원소식               |    |
| 특별기고 3  | 26 | 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도자다 | 지운 |
| 여시여시    | 33 | 광주로 탁발 나가다               |    |
| 발굴자료    | 34 | 칠전간당론                    |    |
| 신문      | 36 | 회상                       | 연해 |
| 신문      | 38 | 사회복지에 대하여                | 보혜 |
| 신문      | 40 | 태안사 두 보물                 | 본연 |
| 신문      | 42 | 무지개마을을 지나면서              | 도선 |
| 신문      | 44 |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도반           | 정왜 |
| 만행기     | 46 | 초행                       | 선용 |
| 신문      | 48 | 송광사에서                    | 해만 |
|         | 50 | 편집후기                     |    |
|         |    | 원고모집                     |    |









## 울력

죽은 송장도 벌떡 일어난다는 울력목탁이 울렸다.  
오늘은 맑은 가을날  
농부의 한 해가 영글어 있는 논으로 간다.  
도란도란 이야기 울력도 겸한  
오늘은 벼베기 울력  
한 포기 한 포기 싹뚝싹뚝  
금새 논바닥은 제살 드러내고  
스님들 괜히 흥에 겨워 손 빨라지는  
오늘은 벼베기 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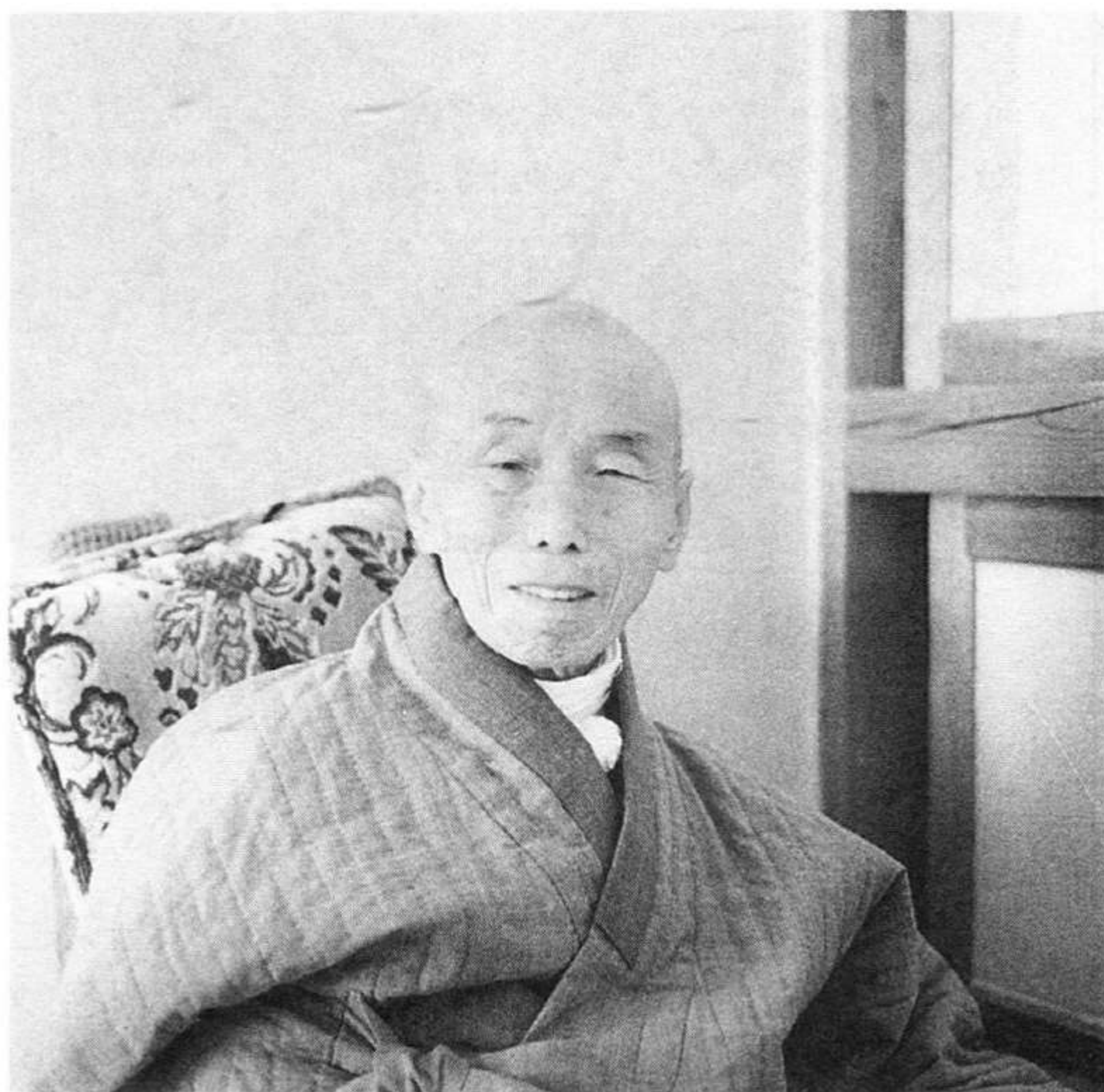
사진·글 자공/교무



# 송광사 도량 수호신, 계룡 노스님

대담 : 보원/사집  
사진 : 한운/치문

계룡 노스님은 열다섯에 출가하여 법랍 68, 속랍 83세가 되도록 송광사를 지키며 살아오신 송광사의 산증인이자 강원대 대선배이시며, 지금도 조석예불과 대중공양에 빠지지 않는 도량 수호신이시기도 하다. 한달 전 낙상으로 팔이 부러져 거동이 불편하신 스님을 찾아뵙고, 송광사의 당시 상황과 강원생활을 중심으로 여쭙보았다.  
- 편집자 주 -



**보원** : 불과 두 해 전에 행자로 노스님을 시봉했는데, 이제 강원 학인이 되어서 강원 대선배이신 스님과 마주 앉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몇 살에 왜 출가하시게 되었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노스님** : 열다섯에 정월 보름날 송광사에 왔어. 고향이 벌교, 저 그 석굴재 넘어가서 추동여. 내가 독자였는데 우리 모친이 중되믄 오래 산다고 했다고 당숙 따라 보냈어. 당

숙이 조계송이라고 송광사 스님였응께. 당숙이 우리스님 향운스님한테 말해줘서 중이 됐제.  
**보원** : 바로 행자 생활을 하셨나요?  
**노스님** : 그래 은사스님 시봉하믄서 행자를 한 일 년 넘게 했제.  
**보원** : 그리고 바로 수계 하셨나요?  
**노스님** : 아니, 수계는 바로 안하제, 삼 년 후 하제. 그때는 한 삼년을 시봉하믄서 은사스님한테 송

주를 배워. 송주가 순 한문여. 그래 어려워.  
**보원** : 스님, 송주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노스님** : 염불말여. 천수경부터 시식까지 다 배우는디 아침에 갈치고 저녁에 점검혀. 그래 못하믄 목탁채로 맞고 그랬어.  
**보원** : 강원에는 몇 살에 가셨고, 그때 강원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1930년대의 송광사 모습

노스님 : 열여섯에 갔제. 그때 송광사 강원 학인이 칠십 명이 넘었네. 그때는 강원 이력이 십 년였어. 졸업할라든 십 년 걸렸제. 강사는 강주 스님 한 분 있고 대교반만 갈쳐. 나머지 치문부터 사교까진 대교반이 갈쳤구만. 대교반이 중강을 하니께 말도 못하게 무서웠어. 본과목 말고는 왜정강사가 있어서 일본말하고 산수를 갈쳤어. 습자(붓글씨), 작문도 배웠제.

보원 : 강의는 어떻게 받았고 시험같은 것도 있었나요?

노스님 : 암 시험보제. 잘 못 치른 장군죽비로 막 패. 그날 배운 걸 못 외도 맞고 그랬어. 그때는 이력을 다 외웠네. 강원생활이 참 되고만, 참 바쁘고. 은사스님 시봉할라 채전 가꿀라 영 바빠. 스님 아래로 텃밭이 있어서 고추, 배추, 무 다 가꿔 먹었어.

보원 : 그때 강원은 어느 자리에

그때는 강원 이력이 십년였어. 강사는 강주 스님 한 분 있었고 대교반만 갈쳐. 나머지 치문부터 사교까진 대교반이 갈쳤구만, 대교반이 중강을 하니께 말도 못하게 무서웠어

있었나요?

노스님 : 지금 송보전 자리에 크게 있었네. 지금맹크로 불교전문 강원이라고 크게 써 붙어 났제. 그때 강주 스님이 금명보정 스님이라고 대강백였거던. 조계고승전을 그이가 썼제. 그 전에는 호봉강백이 했는디, 이름이 나서 사방에서 다 와. 서울서도 많이 왔제. 보원 : 요즘은 선암사 강원하고 일 년에 한두 번 축구를 하는데, 그때도 그랬나요.

노스님 : 암, 그땐 정구를 많이

했제. 굴목재를 넘어다니면서 일 년에 서너 번씩 했제. 그때 운동장은 지금 화엄전 옆에 대밭이었는데 거기에 정구장이 있었고, 축구, 야구 다 했제.

보원 : 강원 졸업은 시험을 쳐서 시켰나요?

노스님 : 시험봐가지고 시켰제. 점수 모질하든 졸업장 안줬제. 지금 꼭 핵교 졸업장맹크로 졸업장이 나왔어. 사중에 2원50전인가를 내. 그라든 한식날 큰 종우 위에 졸업자 아무 스님, 은사스님 아무개 스님 크게 이름을 써서 붙여.

보원 :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듣지 못하겠는데요.

노스님 : 졸업식날 당호(법명)를 받는다 그 말여. 졸업 전에는 그냥 속명을 불러. 그땐 강원 졸업해야 대우를 받고 주지도 하고 그랬어.

보원 : 당시 송광사 전체 대중은 얼마나 됐고,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데요.

노스님 : 암자까지 한 삼백 명 됐제. 해청당, 임경당, 법성료, 만일회, 삼일암, 행해당, 문수전 이게 다 큰방였는디 방사마다 따루 살림을 혀. 방사마다 이삼십명씩 살았응께, 해청당에 가든 북실북실하고 법성료 가든 우글우글하고 그랬제. 그때는 방사마다 원주가 따루 있어. 그때 원주는 단지 반찬 준비만 하고 밥은 공양주가 하고 그랬제.

보원 : 공양주는 지금처럼 행자가 했나요?



노스님 : 아니 공양주는 마실사람 데려다 썼어. 마실 총각이 머리 깎고 한달에 쌀 서말 받고 했제. 돈으로는 십전인가 줬어. 공양주 하다가 중이 되기도 하고 그랬제.

보원 : 왜 공양주를 속인 데려다 썼어요?

노스님 : 아 서루 안 할려고 하니 깨 데려다 썼제.

보원 : 그 당시 포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노스님 : 말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동네동네 돌면서 마실사람들을 모타놓고 했제. 초파일하고 납월 팔일(성도절)에는 사람이 수천 명씩 오는다, 대웅전 마당에다 무대를 채려. 강원 학인들이 침계루에서 팔상극, 목련극을 연습해서 그날 무대에 올렸제. 목련극은 목련존자가 모친 구제한 얘긴디, 구경꾼이 다 울어.

보원 : 그밖에 놀이는 없었습니까?

노스님 : 설에는 웃놀이 성불도 놀이를 했는디, 성불했다고 먹물을 뒤집어 씌워가꼬 법상 위에 올리는디 참 우스워, 참 우스워.

보원 : 그외에 재미난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노스님 : 청년회가 있었는데 참 씩씩했제. 절 일 다 나서서 하고 산에 불나른 다 끄고 그랬어. 그때는 산불이 많이 났제. 그래 중무소에 임무(林務)가 있고 그 밑에 산감이 일곱이 있었어. 산감이 오른 요근방 마실사람덜이 썰썰매고 그랬제.

보원 : 그때 양식은 어떻게 조달



초파일하고 납월 팔일에는 사람이 수천 명씩 오는다, 대웅전 마당에다 무대를 채려. 강원 학인들이 침계루에서 팔상극, 목련극을 연습해서 그날 무대에 올렸제. 목련극은 목련존자가 모친 구제한 얘긴디, 구경꾼이 다 울어.

했고 살림은 어떻게 했는지요.

노스님 : 스님마다 논이 있어. 마실에 이삼십 마지기씩 있어서 마실사람에게 소작을 쥐. 그래 봄가을로 도지를 바치니께 그 쌀로 스님마다 살림을 따루 했어. 공간에 뒤주가 따루 있어서 자물통을 채워 놓고 때거리되든 식구에 맞

춰 공양주한테 쌀을 퍼줘. 그래 공간에 쌀을 맡은 미두 소임이 있었제.

보원 : 절 재산 중에 전답말고 다른 것도 있었나요?

노스님 : 암 학교를 여러 개 갖고 있었제. 스님이 나가서 선생도 했어. 전남여객이라고 버스회사도 하고, 목포에 석유회사도 있었어.

보원 : 그럼 부자 스님도 있고 가난한 스님도 있고 그랬겠군요.

노스님 : 암 땅 없으면 상좌도 못받아. 상좌는 보통 칠팔 명 두는디 은사가 맥여 살리고 죽으면 상좌한테 논을 쥐. 그때는 다 논이 있음께 신도한테 안 바래. 그때는 신도랄게 없었네.

보원 : 그때가 일제시대였던 걸로 아는데 고초를 겪진 않으셨어요?

노스님 : 왜 공출 당했제. 불기, 향로, 촛대, 놋그릇, 쇠붙이는 보는대로 가져가. 그래 감추고 땅에 묻고 그랬네. 그래도 그때는 실향제. 논도 많고, 대중도 많았음께. 아구- 여순반란, 육이오 생각하믄 지긋지긋혀. 말도 못혀. 그래 다 피난가고 절이 비었제. 안 죽을라니께 피난가게 그냥 뒀제. 밤이믄 반란군이 와서 양식을 뺏어가지, 낮에는 토벌대가 와서 양식켰다고 닥달하고 막 패제. 그때는 저녁을 먹으면 오늘은 어디로 숨을까나 연구를 해. 저녁 예불 모시고 다 숨었네.

보원 : 그때 대웅전에 반란군 두명인가가 숨어 있어서 토벌대가 불을 지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노스님 : 아녀. 송광사 중에 김순



조라고 한 삼십 먹었으까. 대웅전 부전인디 반란군을 따라 입산을 했어. 그놈이 반란군을 데리고 와서 말썽을 많이 부렸제. 그래 아군이 지금 승보전 옆에 곳간이 있었는데 거그에 종우가 많았제. 거그다 햇불을 던져서 불을 냈어. 그래 대웅전하고 절 가운데가 다 타버렸제. 징하네 징혀.

보원 : 불탄 후에도 남아서 절을 지키는 스님들이 계셨나요.

노스님 : 있었제. 영원 스님하고 금송 스님이 남았는데 나이 많은 노스님였제. 반란군이 수석정 위에 용소, 아니 불일폭포로 끌구가서 돌로 쳐 죽였어.

보원 : 성보 문화재는 어떻게 지키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노스님 : 다 소개했제. 여그서 십리 못되는 금평마을에 마실집을 사서 거그다 냈제.

보원 : 스님은 효봉 스님 오시는 걸 보셨어요?

노스님 : 그걸 말이라고 혀. 보다마다.

보원 : 효봉 스님은 당신 스스로 오셨나요, 아니면 사중에서 모셔왔나요?

노스님 : 그이가 그냥 왔제. 공부를 잘 하니께 사중에서 조실로 모시고, 자기 맘도 맞고 하니께 한 십년 계셨제.

보원 : 효봉 스님을 뵈니까 도인 같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노스님 : 암 보면 알제. 공부된 스님이다 안된 스님이다 보면 모르능가. 그이가 선방에 한번 앉으면 요지부동여. 통 만나와. 그렇

송광사 중에 김순조라고 한 삼십 먹었으까. 대웅전 부전인디 반란군을 따라 입산을 했어. 그놈이 반란군을 데리고 와서 말썽을 많이 부렸제. 그래 아군이 지금 승보전 옆에 곳간이 있었는데 거그다 햇불을 던져서 불을 냈어.

게 도인인 줄 알았제. 해제되도 안 돌아댱겨.

보원 : 그때는 결제 해제가 따로 없었나 보지요?

노스님 : 왜, 있긴 있제. 그래도 자기들이 안혀. 다 보조국사 숭배하고 공부하지 안돌아댱겨. 그때는 강원 방학도 시안에 한번 있어. 설쇠야 하니께 이십일 쫓제. 그 말고는 일년 내내 공부여. 지

금걸이 해제라고 놀고, 결제한다고 놀고, 삭발했다고 놀고 공부는 언제 하. 그땐 안 놀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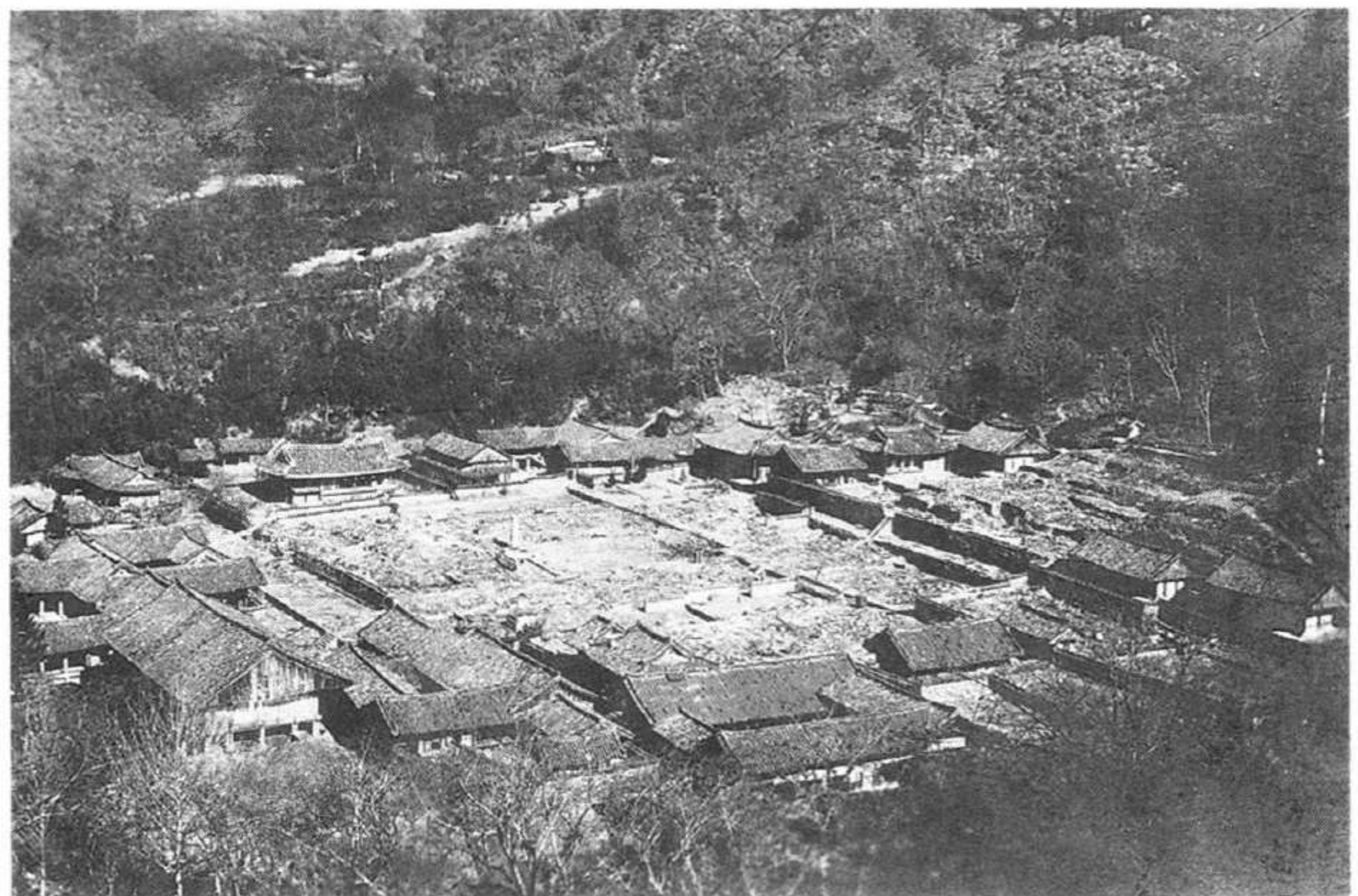
보원 : 효봉 스님이 조실하실 때 수좌들이 많이 모였나요?

노스님 : 암 많았제. 그이 오기 전에는 불과 열댓 명 모였는데, 그이 오고 근 삼십 명이 와서 살았제. 삼일암가고 좁아서 문수전을 선방으로 썼네. 청담 스님, 일타 스님, 성철 스님 그라고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이름난 스님들이 다 와서 살았제.

보원 : 정화라고 해서 비구 대처승 간에 싸움이 심했다고 하는데 송광사는 별일이 없었나요?

노스님 : 암 조용했제. 아무일 없었네. 취봉 스님이 늘 그라거던. 불탄 절 복구할라든 총림이 되야 한다. 그래 사중에서 구산 스님을 모셔 왔제. 그이가 삼일암에서 중 되었어. 효봉 스님 조실하실 때.

보원 : 구산스님 말씀 좀 해주시



6·25때 불타버린 송광사 모습



지요.

노스님 : 그이가 배짱이 세. 암, 배짱 세제. 그라니께 불일회 만들고 중창불사도 그이 덕에 한 것이 아닝가.

보원 : 송광사에서 같이 사신 스님 중에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스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노스님 : 많제. 효봉 스님, 구산 스님, 취봉 스님, 기산 스님, 이 루다 꼽을 수가 없네. 취봉 스님 그이 훌륭하제. 인품 좋고 공부도 많이 했어. 일본 가서 임제대학 나오고 주지도 많이하고 강사도 했제. 기산 스님은 주지를 세 번 했어. 잘하니께 자꾸시킨거제. 그이 참 박식했어. 동국대 이사장을 했고, 통합종단 맨글 때 효봉 스님이 비구 쪽에서 종정을 하고 그이가 대처 쪽에서 총무원장을 했네. 박식해서 송광사지도 쓰고 전남도지도 그이가 썼어.

보원 : 요즘 젊은 스님들을 보며 맘에 안들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은 없으세요?

노스님 : 맘에 안들께 뭐 있어. 다 시절따라 사는 거제. 그때는 그때대로 살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살아야제.

보원 : 법랍이 육십팔 년이신데 지금껏 스님 노릇하시면서 뭐 후회스러운 것은 없으세요?

노스님 : 하나 있제. 중노릇 잘못한거. 남은 게 없어. 염불도 못했제 참선도 못했제.

보원 : 스님 오래오래 사시다가 열반하시게 되면 다음생에도 스님을 하시겠습니까?



에- 중 안햐. 속인으로 돈 많이 모타서 불사 많이 하고 그라야제. 평생 얻어 먹었응께 불사해서 갚아야제. 종이 지가 버는 건 없는디, 남의 집에 남의 쌀에 남의 옷에 다 시주물로 살덜 안능가. 시주물이 질 무서워.

노스님 : 에- 중 안햐. 속인으로 돈 많이 모타서 불사 많이 하고 그라야제. 평생 얻어 먹었응께 불사해서 갚아야제. 종이 지가 버는 건 없는디, 남의 집에 남의 쌀에 남의 옷에 다 시주물로 살덜 안능가. 시주물이 질 무서워.

보원 : 마지막으로 강원의 대선배로서 젊은 학인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노스님 : 다 좋아 뵈제. 젊은 스님들 보든 마음이 좋아. 중노릇은 지 맘에 달렸제. 아무리 말해봤자 지 마음이 없으면 중노릇 못혀. 남이 도인되라고 해서 도인되간디.

보원 : 낙상으로 팔을 다치셔서 건강이 안좋으신데 오랫동안 번거롭게 말씀 여쭙서 죄송합니다. 얼른 나으셔서 큰방에서 매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스님 : 고맙네, 잘 가소.



# 回家鄉

## 고향에 돌아감

승국\사교

所有有在無  
 一切無包有  
 緇人反回鄉  
 素們而外走  
 黃山兮迎松  
 春來花爛慢  
 西湖兮三月  
 冬到雪斷橋  
 窓隙搖塵埃  
 室內閑人休

있다는 것은 없음에 있고  
 모든 없음은 있음에 포함하네  
 깨달은 사람은 고향으로 가는데  
 어리석은 자는 밖으로 달리네  
 황산의 영객송迎客松이여  
 봄 되어 꽃은 만발하고  
 서호의 세 달이여  
 겨울 눈내려 다리가 끊어졌네  
 창틈으로 티끌은 요동치고  
 방안엔 한가로운 사람만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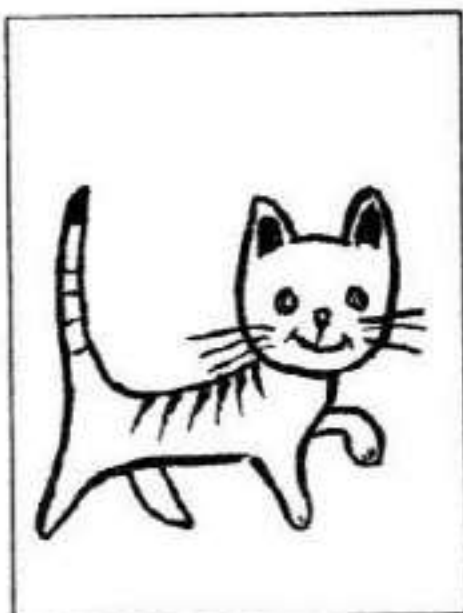
# 해탈아 다음 생엔 사람몸 받아라

지행/치문

**요**즘은 어느 산사에 가더라도 산고양이를 흔히 볼 수 있다. 산마다 고양이가 많아서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번식력과 사냥술이 뛰어난 고양이들이라서 별 뾰족한 대책이 없는 모양이다.

출가하기 전까지 나는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는데, 오래 전 언젠가 우리집에 웬 도둑 고양이가 제발로 걸어들어왔다. 이놈이 새끼를 배고는 앞길이 막막하니까 우리집에서 몸을 풀려고 들어온 것이다.

어머니는 그놈 처지를 딱하게 여기시고 지하실에 새끼 낳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우리 형제들은 그놈과 같이 놀면서 정도 듣게 되었다. 그놈은 귀여운 새끼 다섯마리를



낳았다. 우리들은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놈이 새끼들이 젖도 떼기 전에 저 혼자서 훌쩍 떠나버렸다. 아무리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히고 알미웠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놈이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후로 나는 고양이라면 별로 정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출가하기 위하여 월정사에 갔을 때였다. 원주실에 앉아 있는데 웬 조그마한 고양이가 살랑살랑 걸어와서는 내 무릎에 턱 올라 앉는 것이었다. 내가 쓰다듬어주니까 아예 옆드러더니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 기특하

게 여겨졌다.

그후 행자 생활을 하면서 이 고양이의 내력을 알게 되었다. 원래 산고양이의 새끼였는데, 마룻장 밑에 갇혀서 굶어 죽게 된 것을 울음소리를 들은 은사스님이 마룻장을 뜯어내고 구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 키우게 되었고, 스님이 해탈이라고 이름을 지



어주었다. 나는 곧 해탈이와 친하게 되었다.

지난 봄 어느 날이었다. 비가 온 다음날이었는데, 마당에 빗물이 고여 조그마한 웅덩이가 생겼다. 지나다가 보니 해탈이가 꼬리를 몸에 감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뭘하나 궁금해서 다가가서 보니 웅덩이 속에서 물거품이 툭툭 올라오는데 그것을 신기한 듯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피식 웃고 돌아서는데 너댓 살 먹은 꼬마 하나가 해탈이를 보고는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도 신경 하나 안쓰고 여전히 물거품만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아이도 해탈이 옆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는 함께 그 물거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참이나 지나서 다시 그자리에 가보니 아이와 해탈이는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서 물거품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해탈이는 별 탈없이 잘 자랐다. 나는 한암 큰스님 생신재 때 사미계를 받았고, 곧 시자 소임을 맡게 되었다. 그때부터 해탈이를 내가 돌보게 되었는데 사형은 나를 보고 '해탈이 아빠'라고 농을 하곤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해탈이가 자라면서 점점 야성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처음엔 쥐를 잡더니 나중에는 다람쥐와 새까지 잡아먹었다. 사미율의에 나오는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는 훈계가 옳은 것 같다. 어느날 아침, 해탈이가 새를 잡았기에 좀 심하게 때려주었다.

그러자 이놈이 하루종일 나를 피하더니 밤이 이슬해서야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들어왔다. 미안한 생각이 들어 안아주니까 내 손을 연신 훑아대며 '야옹 야옹'하고 아양까지 떠는 것이었다. 알미운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나는 속으로 '해탈아 다음 생엔 사람몸 받아라!' 하고 빌어 주었다.

해탈이는 별 탈없이 잘 자랐다. 나는 한암 큰스님 생신재 때 사미계를 받았고, 곧 시자 소임을 맡게 되었다. 그때부터 해탈이를 내가 돌보게 되었는데 사형은 나를 보고 '해탈이 아빠'라고 농을 하곤했다.

해탈이도 어엿한 고양이로 자랐다. 그런데 이놈이 바람이 나서는 암내를 풍기며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니 한 이틀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날 새벽에 예불을 마치고 시자실로 들어가는데 열어놓은 문 안쪽에 처음 보는 고양이가 보였다. 바깥에서 가만히 살펴보니 해탈이는 방 안에서 허기를 채우고 있었고 그 고양이는 문 앞에서 망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해탈이와 짝을 맺은 것이었다. 고것들 대담한 행동에 어이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특히 해탈이의 짝이 보기 드물게 잘생긴 고양이였기에 마음이 흐뭇했다. 사실 해탈이가 어떤 고양이와 짝을 이룰까 조금은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둘이 형제지간이란단. 동물은 동물인가보다 하고 씩씩하게 생각했다.

얼마 후 해탈이의 배가 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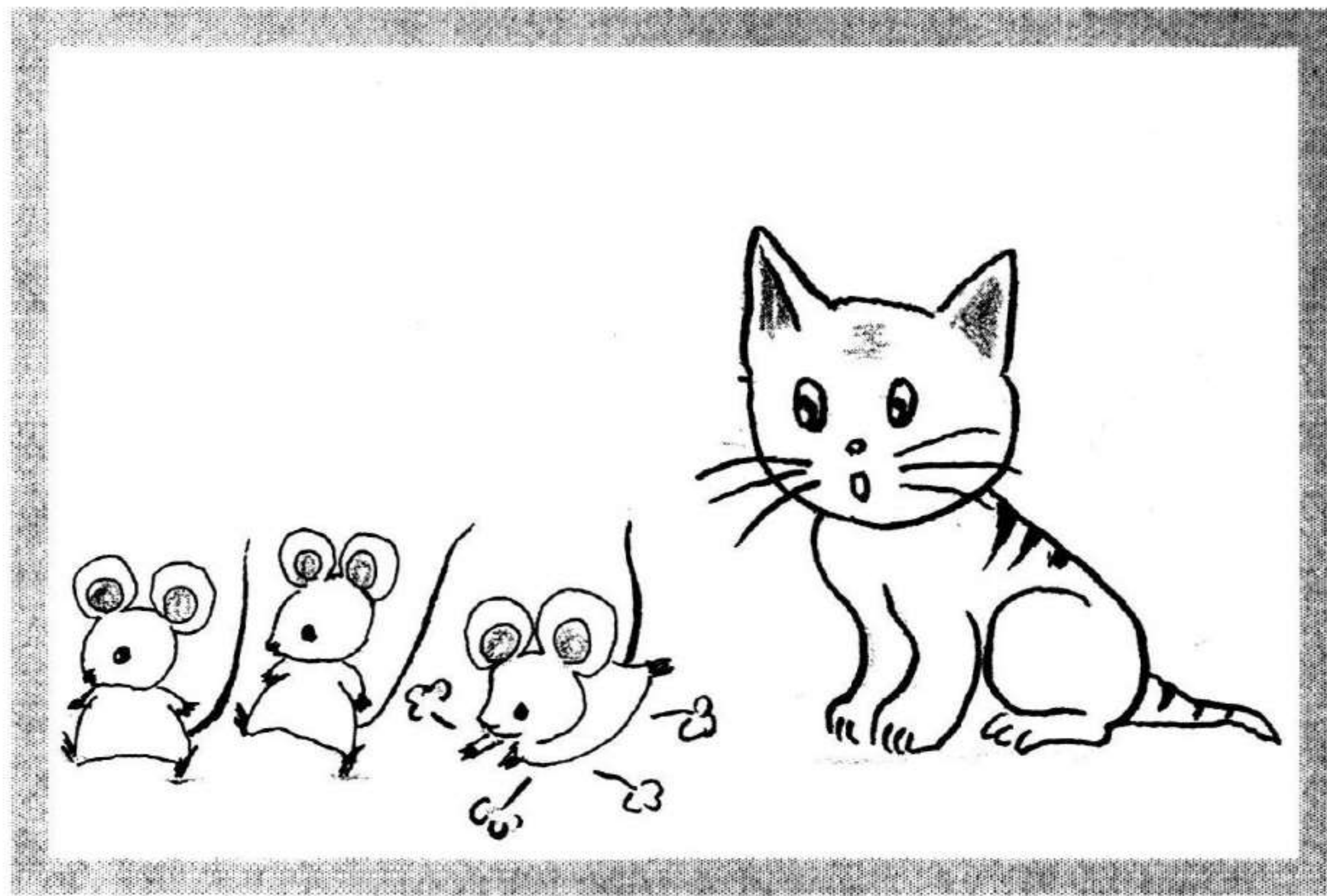




씩 부르기 시작했다. 해탈이는 원주실 다락에다 새끼 낳을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았다. 새끼를 뵈지 두 달도 안되었을 무렵이었다. 원주실 다락에서 해탈이의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았더니 해탈이가 나를 보고 마구 울어댔다. 평소의 울음소리나 표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사형이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고양이는 새끼 배고 3개월 후 낳는다고 알고 있기에 해탈이가 무슨 까닭으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해탈이는 내가 다락문을 열면 다락 위로 올라가고, 문을 닫아주면 문으로 내려와 다시 울어댔다. 이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더니 아예 방으로 내려와 내 앞에 서서 마구 울어대는 것이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당황해 하는데, 해탈이 몸 속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다. 애기 주머니였다. 두 개나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해탈이가 먹어 버렸다. 유산을 한 것이다. 허탈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두 마리를 유산했지만 해탈이의 몸 속에는 새끼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었다. 스님 말씀을 좇아 시자

실 옆에 새끼 낳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집이 마음에 드는지 해탈이는 밥먹을 때 외에는 거의 집 속에 들어가 있었다. 유산하고서 20일쯤 지났을 때였다. 해탈이 집 속에서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끼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해탈이가 낳은 새끼는 전에 보았던 귀여운 새끼고양이가 아니라



팔 다리도 퍼지 못한 아주 작은 형편없는 것이었다. 사람으로치면 칠삭둥이인 셈이다. 그래도 해탈이는 연신 새끼를 핥아주며 몸으로 감싸주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며칠을 보낸 후, 해탈이가 없는 틈을타서 새끼를 꺼내보니 몸이 싸늘했다. 그날 아침까지 울어대던 것이 죽은 것이다. 멍하니 새끼를 쥐고 앉아있는데 해탈이가 들어오더니 새끼를 물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사형이 새끼를 물어주자고 해서 뒷산 전나무 숲속에 물어주

었다. 해탈이가 구슬프게 울어댔다.

해탈이를 통해 동물들도 꿈을 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해탈이가 발버등을 치며 킁킁대는 것이었다. 흡사 사람이 가위 눌린 모습과 똑같았다. '베어'라는 영화에서 아기곰 두스가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그것을 꾸며낸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해탈이가 꿈을 꾸는 것을 보고는 동물들도 꿈을 꾸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지금쯤 해탈이는 다시 새끼를 낳았을 것이다. 이번엔 건강한 놈들을 한 다섯마리쯤 낳았겠지. 그리고 새끼들은 낯선 사람이 앉아 있어도 아무 거리낌없이 살랑살랑 다가서는 그 사람 무릎 위에 턱 올라 앉을 것이다.



## 도류들

희일/사집

빛이 잘 들되 온기라고는 없는 그런 곳에 한 칸  
관곽을 문을만한 정도가 필요합지  
소리 정도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관여함이 적을수록 서로 좋겠습지  
금강좌를 앉고서 그만입지  
도류들  
별을 헤아리기로 새벽이 되어서도 눈만 여전히 밝아  
시간과 공간이 유리되어 버린  
지금, 여기  
정신만 따로 뿌리틀고 앉아 그만입지  
풀풀거리며 나를 떠나는 나의 뒷모습이  
가볍게 부서져 버릴 때까지  
탈논리로  
도류들  
어둔 눈 뜨라고 두 눈에 촛물이라도 흘려줍지  
고와 해를 양쪽 발바닥에 짝해 인각해 둥지  
견디기 힘든 건 공복이 아님지  
오히려 친절입지  
도류들  
이렇게 달이 없는 보름이면 깜빡 그림이라도 되는줄 알아버린  
주민들 틈에서 환하게 웃.



# 송광사 종소리

하일사교



**출**가하기 전에, 언젠가 택시를 탔는데 차안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통은 자동차 카세트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는 법인데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도 신기해서 기사님에게 "기사님, 무슨 종소리 입니까?" 하고 물으니 "예, 송광사 종소리입니다." 하며 송광사의 어느 스님께서 직접 녹음해서 기사님에게 주었다고 한다.

너무나도 종소리가 고요해서 나는 그만 명상에 잠기고 말았다. 차창 밖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자동차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종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내마음은 고요해졌다. 나는 종소리를 차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들었다. 너무도 종소리의 여운이 좋아서 줄곧 송광사 종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뒤 내가 송광사에 입산하여 행자 때 마침 종을 칠 기회가 왔다.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다. 12시 정각에 종을 쳤다. 처음에는 웬지 떨리기도 하고, 내가 과연 종을치고 있는가 하는 기쁨에 얼떨떨하기도 했다. 열두 번을 치고나서 나는 속으로 '와! 종쳤다. 내가 종을 쳤어' 하면서 기쁨으로 마음이 떨렸다. 정말이지 이 세상 누구라도 그때의 기분을 모를 것이다.





종소리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친다고 한다.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 친다. 종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에 잠겨본 경험이 있는가? 정말 종소리를 들으면서 고요한 내마음을 종소리와 함께 하여 명상에 잠기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다. 종소리에 마음을 맡겨 버리면 내마음은 종소리가 되어서 일체 번뇌가 사라지는 것 같다.

새벽 3시에 기상하여 간밤에 잠들었던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먼저 도량석 목탁 소리가 잠을 깨운다. 그 뒤엔 아침 종송으로 우리 스님들 신심을 북돋아 주고, 북소리는 네발로 걸어다니는 동물들을 구제하기 위해 치고, 다음에 물고기를 제도하기 위해 목어를 치고, 날아다니는 새를 구제하기 위해 운판을 치고 마지막으로 대종을 친다. 팡팡 팡팡... 종소리는 조계산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 하늘나라에 올려 퍼지며 조계산 계곡물을 따라 바다에 흘러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못 중생을 제도한다.

아, 아 송광사의 종소리여 올려 퍼져라

요즈음 가끔 청년 불자와 젊은 보살이 나를 찾아온다. 나는 송광사를 두루 안내를 해주고서 마지막으로 송광사 종소리가 담긴 김영동의 선음악 테이프를 하나 사준다. 내가 직접 북을 치고 종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송광사의 예불을 잘 표현해내 듣기가 괜찮다. 또 신도들이 오면 보낼 때 내가 직접 자동차 카세트에 송광사 예불이 담긴 테이프를 들려 주면서 "이 테이프에 나오는 북소리와 종소리 내가 직접 쳤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북치는 스님이 직접 테이프를 사주고 틀어 주니까 정말 당신들은 복 받았습시다." 하고 그냥 웃어버립니다. 하하 하아 악!

## 원고모집

다음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글의 형식이나 주제는 자유이며,  
진실되고 소박하며 꾸밈이 없는  
글이면 환영합니다.  
강원대중 모두의 해청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오니 언제라도  
편집실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해청당 편집실





# 해애 (解碍) 에 칼질을!

정목/사집

**어**제 저녁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홀로 주체할 수 없는 공부는 오늘 새벽 눈을 뜨자마자 다시 피어 올라 결국은 일요일 강의 없는 시간에 상강례를 마치자마자 가사 장삼만을 꾸리고 천자암으로 향하게 했다. 과연 내가 안 것이 옳은 것인가, 이대로 길을 가면 되는가? 봉(棒)을 맞더라도 큰스님의 검증을 받고 싶은 탓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난 여름 포교원에서 조부모님과 일찍 자기 길을 택해 간 큰형님과 아침 출근길에 불의의 사고로 서른이 채 안된 젊은 형수와 세살박이 아들만 남기고 너무도 젊은 나이로 떠나간 둘째형님, 죽기 전에 나는 죽어도 동생스님 긴 장삼 자락에 매달려서 극락 갈테니 걱정말라던 그 형님의 영가를 위해 백일 관음기도를 했지만 끝에 가서는 얼렁뚱땅 끝냈다. 하지만 제 갈길도 확연히 모르는 주제에 남에게 무엇을 제시하랴 싶었고 주변분위기 속에서 신심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무리 못한 강원공부가 가슴에 맺혀, 은사스님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절망을 꾸렸다. 어디 좋은 기도처에 가서 미진하게 한 기도를 보충할 겸 49일 지장 기도를 하고나서 그래도 도반이 있고 승풍이



살아있는 송광사 강원에 방부 들이겠다는 생각으로 몇 군데 기도처에 들렀으나, 웬지 신심이 통 나지 않아 여행만 하게 되었다. 대구에서 목포로 가는 버스 안에서 문득 옛 사람에 대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지고, 그 모든 것이 피어났다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절절히 남가일몽으로 다가왔다.

강원에 방부를 들였으나 마음이 바로 잡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한갓 꿈이요 부질없다는 생각만이 팍 차니 마음은 넓어지고 몸은 좋아진 듯 했으나, 본분사인 경전공부도 마음공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강원에서 다시 배우기 시작한 과목은 규봉 스님의 도서였다. 전에 강원예 살 적에 보기는 했지만 다시 보니 새로워지고 뜻도 더 잘 새기게 되었다. 하지만 규봉 스님의 돈오점수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시비심만 더 동하는 듯했다. 동안거에 들어서자마자 결제날부터 마장이 꺼서 자칫 송광사 강원을 영원히 등질 뻔했으나 도반 스님들의 타이름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은사 스님과 주위 인연들과 그리고 세상천지 그 어디에도 이대로는 이 한몸 용납하지 않는 듯한 막막함으로 다시 발길을 되돌리게 되었다. 동안거에 들어서 배우기 시작한 절요는 도서보다도 더 많은 깨달음에 대한 말씀으로 점철되어 있



고, 규봉 스님의 돈오점수론은 속을 더욱 거북스럽게 했다. 왜 파도에 나타난 해인 삼매는 보지 못하는가. 자신이 못볼 뿐이지 아니 비춘적이 없건만, 왜 어른만이 완성자란 말인가. 아회는 아회로써의 일이 있는데.

어떤 바보가 빵집에서 빵을 몇 개 시켜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에이, 진짜 이 빵만 먹을 걸, 그럼 하나만 먹어도 되었을텐데" 하는 것처럼 마지막 빵에만 가치를 두는 것은 아닌가. 왜 빵 하나 하나가 제 역할 했기에 배가 부르게 된 줄 모르는가.

한국 철학서 가운데 가장 난해하다는 이 절요를 대하면서 머리는 아파오고 시비심만 더 고개를 드는 듯했다. 그러다 보니 몸도 점점 균형을 잃어가는 듯했고,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문득 대학시절 수련대회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서로 돌아가며 솔직히 이야기하는 윤좌법회 때에 누군가에게 '선배님, 요즘 좋아하는 분이 누구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불단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가리켰던 생각이 났다.

그 순간 '그래, 그러고보니 나는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깊었나 보구나. 이제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님께 맡겨보자' 하는 일념이 싹텄고 "관세음보살"을 지송하기로 뜻을 세웠다. 입 밖으로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항상 염송하고 귀로 듣고자 노력했다. 눈을 뜨면서부터 누울 때까지 빈 시간이면 관세음보살에 매달렸다. 그리고 삼경 후에 꼭 얼마간을 호흡에 맞추어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관했다. 처음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상속되고, 어쩌다 보면 뚝 끊긴채 한나절이 지나기도 하고 몇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점점 간단함이 줄었다. 그러다가 어제 저녁 갑자기 잡다하게 갈라져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이 물밀듯이 하나



로 정리되길래 그것을 시로 표현해 보았다.

제바님께 계수레 하옵고  
 석가 노인에게 한 몸뚱이 안기나니  
 똥은 피어남이 고와서 좋고  
 꽃은 썩는 구린내 향기롭네.  
 봄산은 이뻐서 뛰어놀고  
 겨울산은 텅비어 텅구나니  
 옛 무덤가 망부석과 입맞춤도 달콤하네.  
 심청아! 뽕덕 어미야!  
 나랏님 잔치구나.  
 얼씨구 절씨구  
 멋들어지게 놀아보세.

이렇게 궁구하고서, 조사님들의 화두를 맞대어보니, 모두가 넘어가는 듯했다. 문득 평상심을 내니 이것이 헤아림에서 나온 것이 클 터이니 잘못된 것은 아닌가. 혹시 혼자 좋다고 춤추며 가다가 시궁창에 처박히는 것은 아닌가 싶었고, 어찌 됐든간에 빨리 들뜬 기분을 누르고 싶어서, 큰스님께 찾아가는 길을 서두르게 되었던 것이다. 한발짝 한발짝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산길을 오르는데 오랜만의 산행이라



더러 숨이 가빠오기도 했으나 모퉁이를 돌아서니 한 달음이었다.

천자암에 다달아 셋길 옆에 '정문으로 돌아오시오' 라는 뜻말을 따라 돌아가니, 마침 활안 스님이 나오 고 계셨다. 어디를 출타하시나 싶어 급히 가서 반배 를 올리고, "스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 포행중이라 하시며 왜 왔냐 물으셨다.

"큰절 강원 학인인데 스님 불사 좀 보고 제 불사에 대해 여쭙고자 왔습니다." 하니 "어느 절 주지냐?"

"아닙니다. 心불사입니다." "그래." 만약 지

금 다시 "어디 주지냐" 물어 오시면 "법

계사(法界寺) 주지입니다." 하겠지

만 그때는 그저 마음에 해아림

없이, 주머니에서 어제 저녁

에 적어 놓은 것을 꺼내 보

여 드리니 "중요한 곳이

어디냐" 하시길래 "처음

부터 끝 까지입니다"

하니, 몇 번을 훑어보

시고 내어주시며 "그건

됐다. 이제 뜻을 두어

야지, 천진 지혜가 열

려야해. 금강경을 10만

독 하든가 천수주를 100

만독하든가 해도 좋지. 그

것이 결국 '무'자를 늘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천진 지혜가

열려야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제접할 수

있어. 법상에 올라가 눈이 밝지 못하면 법상이 뒤집

어지거나 누가 물어오면 찢찢매지. 상대가 없는 텅빈

세계가 되면 흔들리기 쉬워. 종자는 이미 갖추어 있

으니 농기구를 잘 선택해 가꾸어야지. 천수경에 '無

爲心乃起悲心'이라 했잖은가. 무위심이나 여기서 비

심을 발해야 싹을 잘키워 열매를 맺지, 그래서 "速令

滿足諸希求'하는 것 아니야. 여기서 승속이 필요없

어. 아무데서나 그대로 지어나가기만 하면돼.. 그리

고 근기가 어떻게 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하근기가

됐든 중근기가 됐든 상근기가 됐든 말야. 그렇지, 그

렇게 지어 가면 준제공덕취 적적심상송이니 우차여의 주 정획무등등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아는 사람 만 아니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는 여기서 이제야 길을 알았다는 기쁨에 맨바닥 에서 가사 장삼을 수할 겨를도 없이, 절망만 벗어 놓 고 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몸이 가벼워 절을 하고 있 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꿈이었다.

"절은 무슨 절이야.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는 것

이지. 꼭 화두나 좌선에만 매달릴 필

요는 없어. 뜻을 두고 천진 지

혜를 나타내야 해. 그럼

그만 가봐."

스님께 인사를 올리

니 저쯤 가고 계셨

다.

"스님 종종 뵈러

오겠습니다."

"뭘하러 또 오나.

공부나 잘하지."

법당도 안들르고 그냥

문밖에서 곧장 돌아서

오는 길에 걸음은 왜이리

가벼운지.

관세음, 관세음.

그랬구나. 규봉 스님과 보조 스

님이 다 후학을 위한 간절함으로 그

러셨구나.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던가, 후

학들이 바른 신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바로

그분들이 관세음이었구나.

큰스님은 어찌 그리 내속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시

기나 한듯이 말씀하시는가. 그 은혜 너무나 깊으니

관세음보살님만 더욱 확연해져 가고, 아직 천진 지혜

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내 주머니에 들어 있으니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간다.



**늘** 새로운 변화를 좋아했던 너희들, 미지수 가끔씩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어 나를 놀라게 하고도 능청스럽게 웃어 보이던 너희들.

항상 스님들을 더 따르고 좋아해서 너희들을 미워해 주고 싶었지만 내가 받은 작은 사랑보다 너희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던 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들 앞에 서서 해매면서 너희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도 말뚝 신심 하나로 밀

어붙쳐 너희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선생님이 되셨을 때 이별을 해야 했던 우리.

너희랑 나누어 먹던 떡볶이와 짜장면, 그리고 밝은 웃음, 그 속에서 난 너희들의 순수함을 배웠지. 거기

서 만큼은 내가

선생님이 아닌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어서 말이다.

내 품안에 안기려고 코밑에 묻은 코를 옷소매로 훔쳐내고 달려들어 안기며 웃던 얼굴, 맑은 눈동자 속에서 보았던 부처의 모습. 또 언젠가 너희들이 절에 가지고 올라온 세발 자전거를 난 면허증 없는 병아리 운전수가 되어 어렵게 강습하던 법당 앞마당과 눈이 오면 비닐포대를 타고 놀아서 말끔한 거울같이 닦아 놓았던 언덕뚝기가 그리워진다. 너무나 짓궂어 누가 어린이 법회에 다니는 범우님이요, 누가

어린 부처님께 찬불가와 부처님 말씀을 전해 주는 선생님인지 모르겠다며 웃으시던 스님들, 모두 다 그리워진다.

이젠 여드름이 드문드문 솟아오르고 좀 더 발달한 모습을 하고 거울을 한번 더 들여다보고 점잔도 빼고 멋진 표정을 지어 보는 소년, 소녀로 학생회에 나가고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수덕사를 떠나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린이회, 학생회에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이 더 많이 들리더구나. 식구도 많이 줄고, 스님과 선생님들 신심도 예전 같지 않고, 일년 반 정도 어린이회, 학생회를 쉬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겼다니 속이 너무 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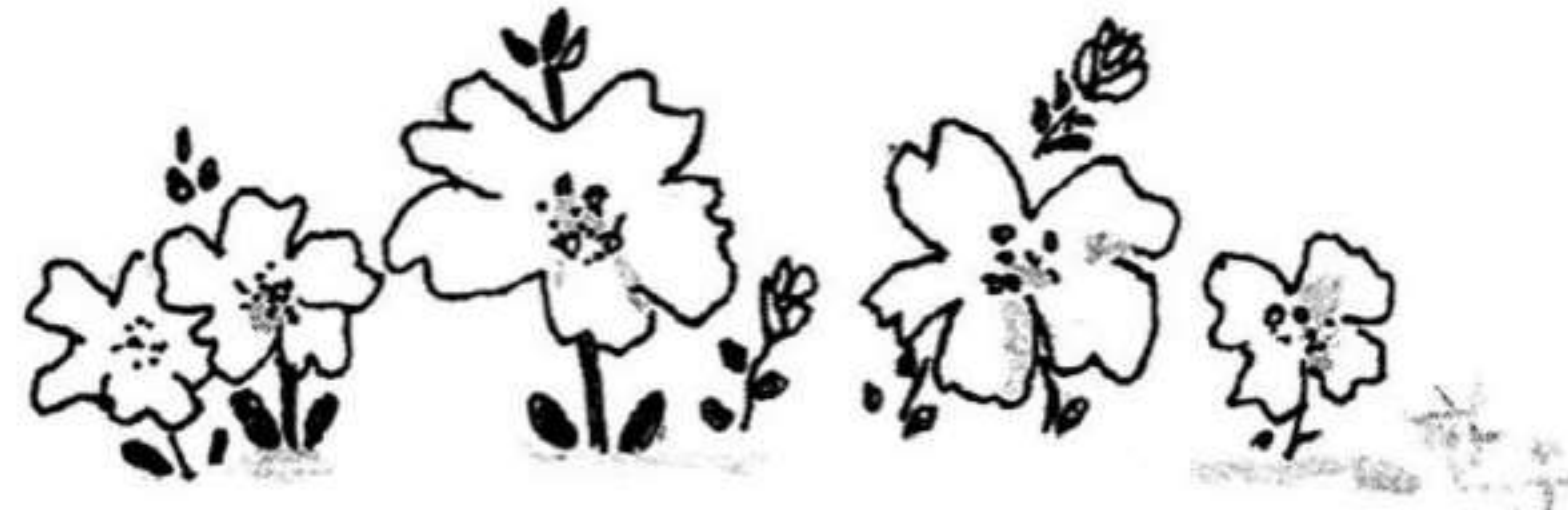
누각 한쪽을 차지하던 어린이회 법당이 누각의 새로운 불사 때문에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법회를 계속 할 수는 없는지 아쉽기만 하다.

하루빨리 불사가 끝나서 수덕사 어린이회, 학생회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큰 원력을 가진 스님과 선생님들을 인연있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자. 스님은 스님대로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부처님께 말이다.

## 수덕사 아이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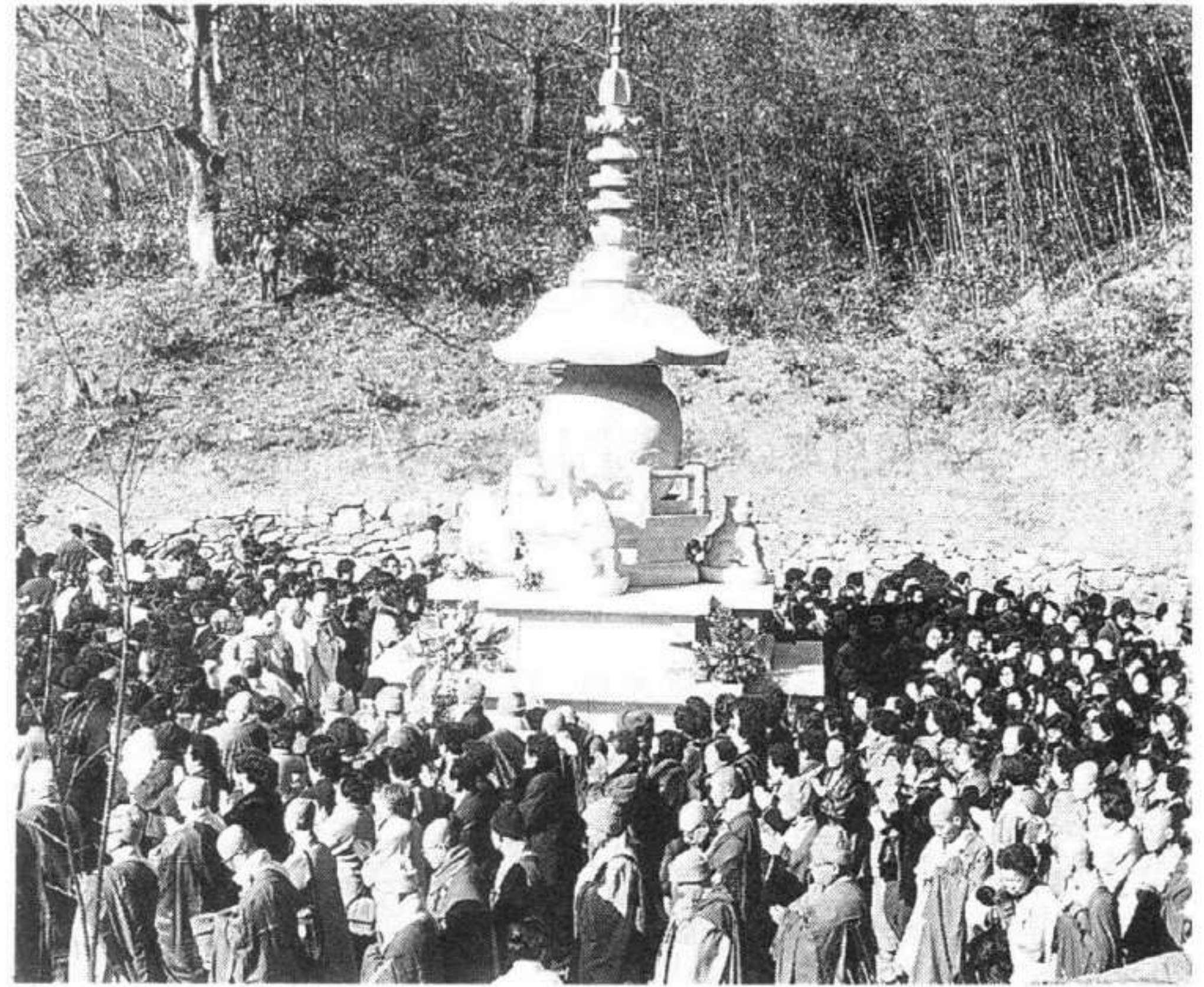
한운/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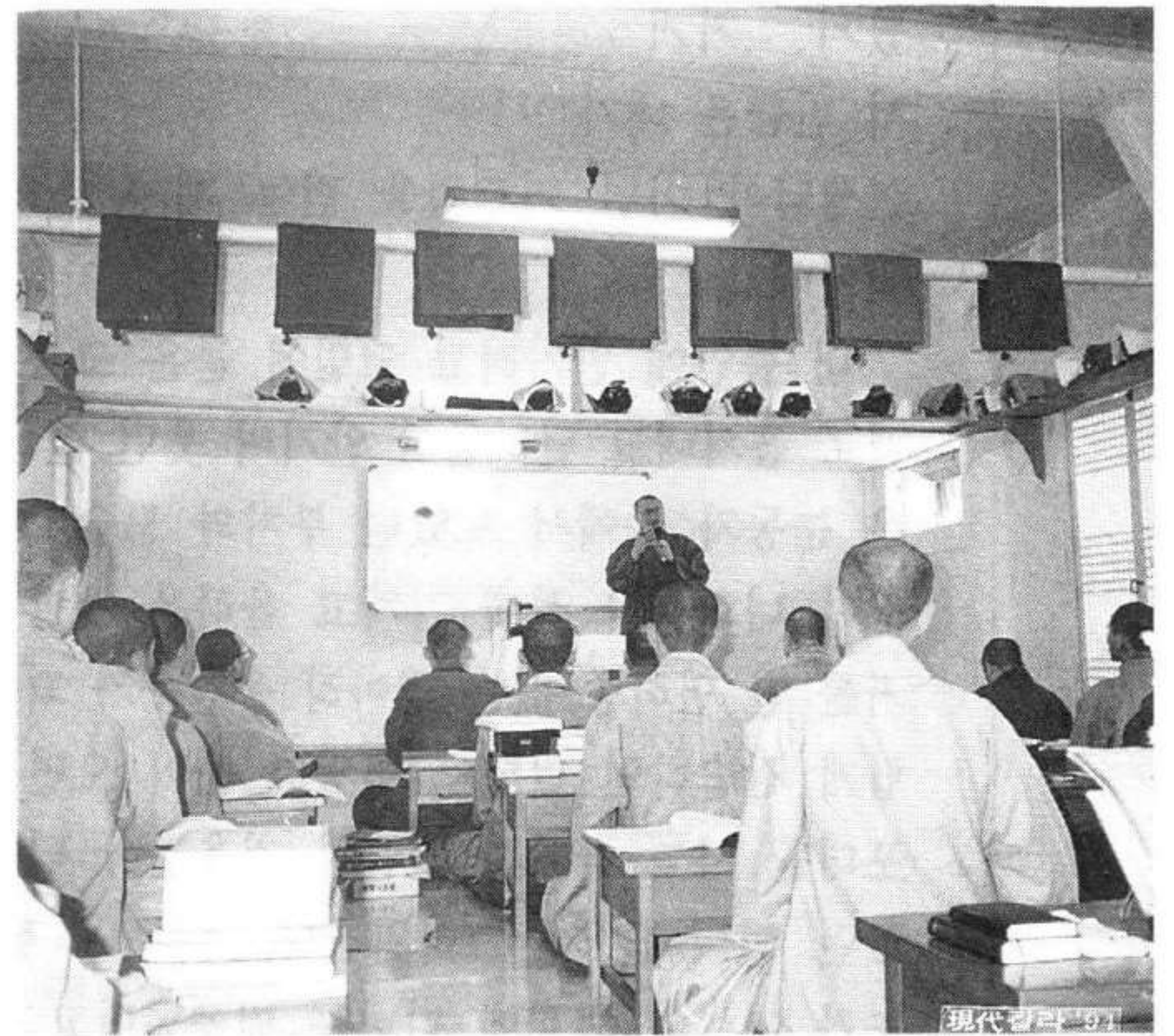




現代칼라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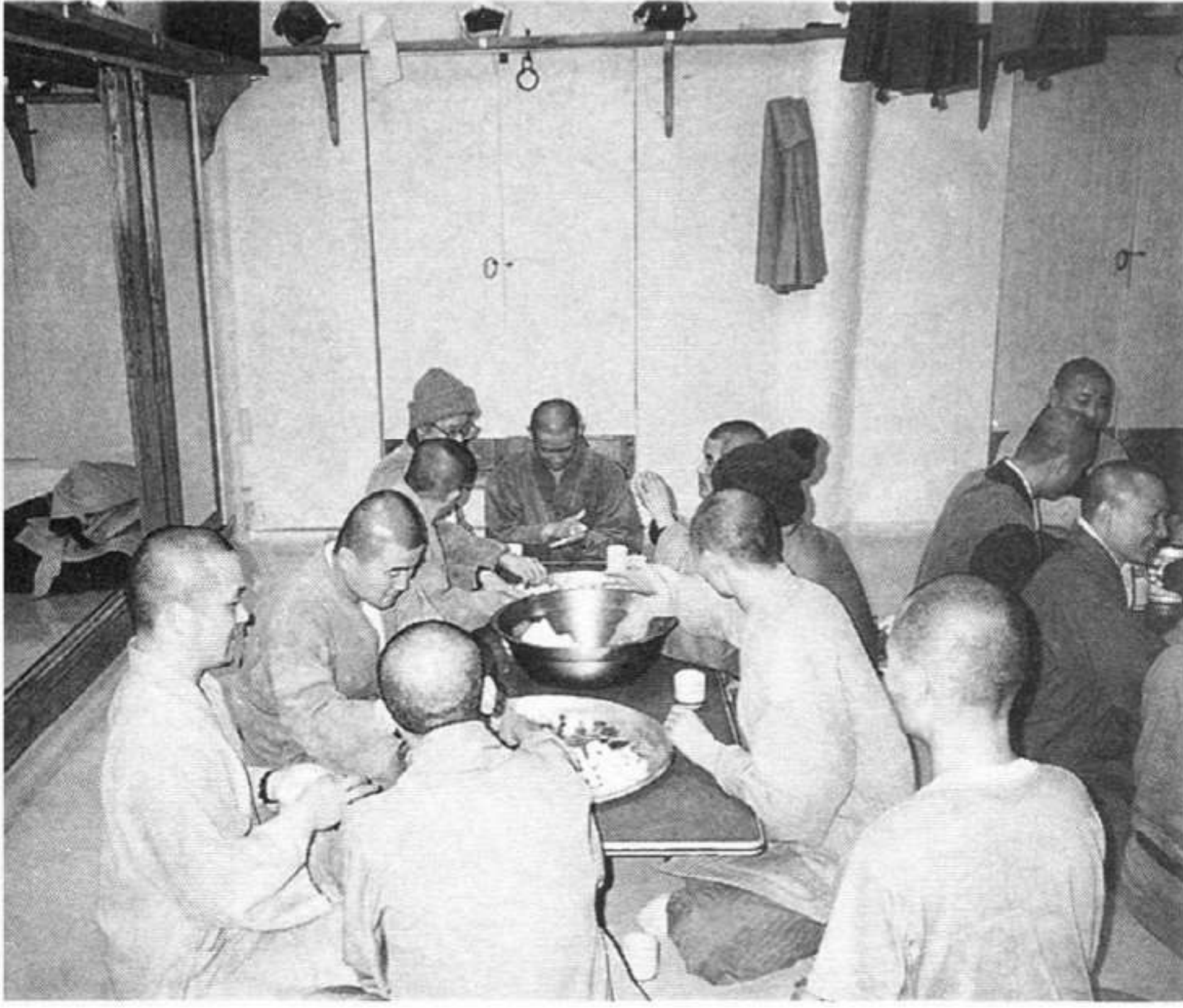


화보로본  
강원소식



現代칼라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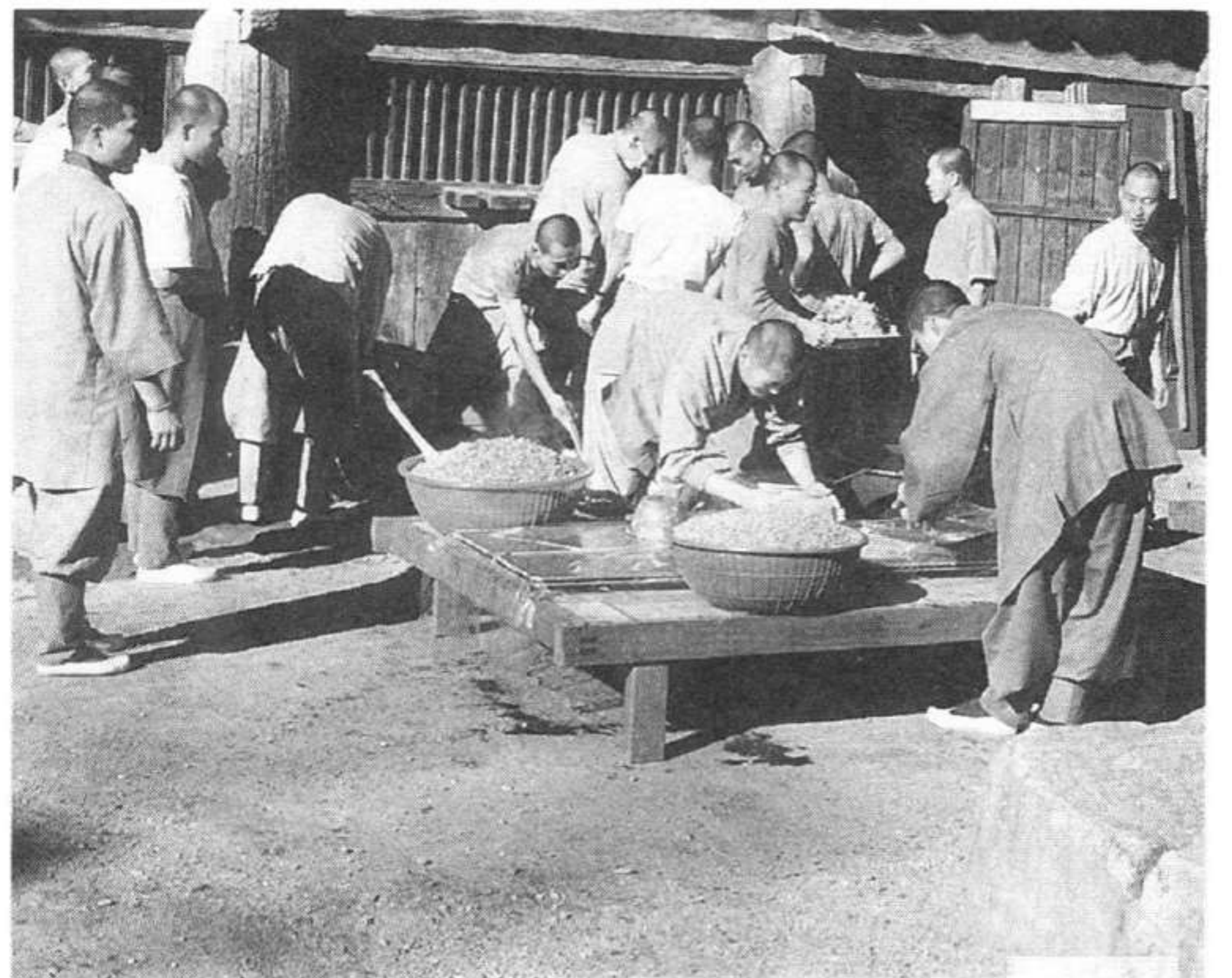




10월 6일 : 효봉 스님 재일을 맞아 많은 사부대중이 모여 추모재를 올렸습니다. 강원대중은 도량청소와 후원소임을 맡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먼길 오셔서 다각 소임을 봐주신 운문사 학인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 9일 : 절 아랫마을로 버베기를 나갔습니다. 땡벌 속에서 낫질을 하며 시주물의 귀함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10월 10일 : 절 뒷산 참나무 숲에서 도토리 줍기 울력을 했습니다.







10월 20일 : 달마산 미황사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땅끝마을을 구경하고, 대둔사에 들러 참배했습니다.

10월 21 ~ 27일 : 정화 스님을 모시고 유식학 특강을 들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유식학에 한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던 이번 특강은 학인들의 요청으로 하루 연장되어 반야심경 강의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11월 1일 : 울주(보성)스님, 강주스님 등 사중의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광주 시내에서 탁발을 했습니다. 탁발금은 송광사에서 운영하는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고 스님)에 보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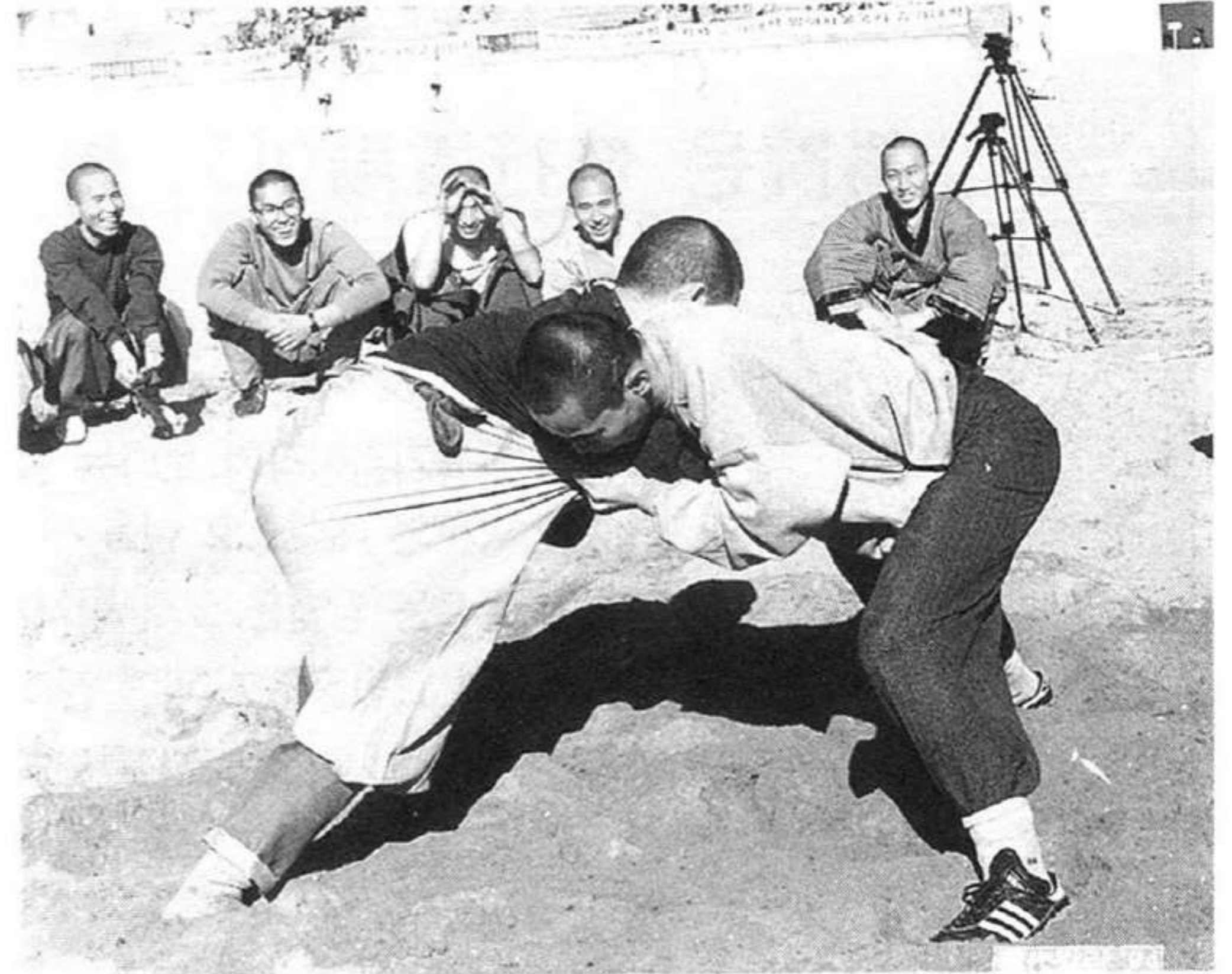




11월 17일 : 강원학인 39명이 동안거결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결제에는 태극권(강사 보경 스님)과 컴퓨터(강사 노휴 스님)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11월 29 ~ 30일 : 김장울력을 했습니다. 사중 전 대중이 모여 배추뽑기를 시작으로 다듬기, 절이기, 소금물빼기 순으로 겨울 반양식이라는 김장울력을 마쳤습니다.

12월 15일 : 구산 스님 11주기 추모법회가 있었습니다. 8백여 사부대중이 모여 성대히 모신 이번 추모법회에는 스님의 법문집 「구산선문」 제 1권이 발간되어 더욱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 특별기고

###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지운/강주

####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 目 次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 ※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2) '공부' 라는 말의 意味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 깨달음에 이르는 세 가지 중요한 관점

한국불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수행자에게 수행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데 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강원을 교육기관으로 보기 때문이고 학문의 場으로 보는 데 있다. 진리체험의 통로가 학문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막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강원의 분위기 속에서 공부한 자가 지식에 근거한 반복하는 논리적

사고의 습관성에 길들여짐으로 해서 禪院에 갔을 때 마음의 통로가 막혀서, 말하자면 사랑분별이 話頭에 대한 의정을 막아 수행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출가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꿈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려면 깨닫는 것이야말로 생로병사 등의 모든 꿈에서 벗어나는 한가지 길이다. 그런데 깨닫는 일에는 자신의 내부를 향하여 마음을 관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달마스님은 <觀心論>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즉,

“문기를, ‘어떻게 一法이 諸行을 摠攝합니까?’ 달마스님이 답하기를, ‘마음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다. 일체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생긴 것이니, 이러한 마음을 명백하게 이해하면 만가지 수행이 다 갖추어지니라. 비유하자면 큰 나무의 가지와 꽃과 열매 등이 모두가 뿌리로 인하여 있으니, 나무를 가꾸려는 자는 뿌리를 두어야 나무가 살 것이요, 나무를 치려는 자는 뿌리를 제거하면 반드시 죽는 것과 같나니, 이와 같이 마음이 뿌리됨을 명료하게 알고 도를 닦으면 힘을 적게 들여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도를 닦으면 功만 허비하고 이익은 없으리라. 그러므로 알라. 온갖 선과 악은 모두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으니,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옳지 못하니라.”<sup>1)</sup>

達磨스님은 여기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수행)에 대하여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마음이 모든 존재의 근본임을 알아서 수행해야 되고 수행하려면 마음 밖에서 찾지 말아야 함을 말한다.

앞에서 지적한 달마스님의 깨달음의 길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점을 그 반대의 입장에서 차례로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첫째, ‘하필이면 마음만이 존재의 근본이고 마음 밖의 존재는 근본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마음은 나무뿌리와 같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현상(法)은 오직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마음을 닦는 것이 왜 수행이 되는가’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온갖 선과 악 등의 일체현상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으니, 이렇게 마음이 존재의 뿌리됨을 명백하게 이해하면 만가지 수행도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若能了心 萬行俱備”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모든 존재의 뿌리됨을 알아서 도를 닦으면 힘은 적게 들어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요, 이러한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도를 닦으면 功만 허비하고 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왜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는 것이 옳지 못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마음이 존재의 근본이므로, 당연히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위의 깨달아 들어가는 이 세가지의 중요한 관점의 귀결은 마음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므로 이러한 마음이 모든 존재의 뿌리이기에 이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마음을 수행하는 데에 마음 밖에서 찾자 말고 안에서 찾아야 함을 말한다, 안에서 찾으려면 자신의 내부를 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조스님도 <修心訣>에서 달마스님과 같은 요지를 설하고 있다. 즉,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미혹해 온 지가 오래이므로 자기의 마음이 眞覺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성품이 眞法임을 알지 못하여 法을 구하려 하되 멀리 성인들에게 찾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되 제 마음을 觀하지 않는다.”<sup>2)</sup> “이 마음 밖을 떠나서 부처를 이룰 수 없다”<sup>3)</sup> “원컨대 모든 修道人들은 간절히 밖에서 구하지 말라”<sup>4)</sup>

1) <達磨觀心論> “問曰 云何一法 摠攝諸行 師答曰 心者 萬法之本也 一切諸法 唯心所生 若能了心 萬行俱備 譬如大樹 所有枝條 及諸華菓 皆悉因根 栽樹者 存根而始生 伐樹者 去根而必死 若了心修道則 省功而易成 若不了心而修道 乃費功而無益 故知一切善惡 皆由自心 心外別求 終無是處” (禪門撮要 鏡虛惺牛 編輯 佛母山聖住寺 發行 p. 125)

2) <修心訣> “嗟夫 今之人迷來久矣 不識自心是眞覺 不識自性是眞法 欲求法而遠推諸聖 欲求佛而不觀己心” (普照全書 佛日出版社 p. 31)





라고 절실히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라고 하듯이 여기서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요지는 곧 觀心 즉, 마음을 관하는 한가지 길 뿐임을 설하고 있다.

그런데 왜 관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에 대하여 달마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마음을 觀하는 이 한가지 방법이 일체 모든 존재를 총섭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sup>5)</sup>

라고 하여 깨치는 길은 마음을 관[觀心]하는 이 한가지 길은 모든 존재를 총섭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혜가스님에게 설하고 있다. 이는 앞에 달마스님이 “마음은 모든 존재의 뿌리이다”라고 한 것과 맥락이 같은 것이다. 이것은 <大乘起信論 立義分>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하고 있다. 즉,

“法이라고 한 것은 衆生心を 말함이니 이 마음이 곧 一切의 世間法과 出世間法을 통섭한다”<sup>6)</sup>

라고 하고 <海東疏>에도

“‘法이라 한 것은 衆生心を 말한다’라는 것은 自體를 법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이제 大乘 중에 일체의 모든 법이 다 별다른 體가 없고 오직 一心으로 그 自體를 삼기 때문에 ‘法이란 衆生心を 말한다’고 한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일체를 포괄한다’고 한 것은 대승법이 소승

법과 다름을 나타내니, 참으로 이 마음이 모든 법을 통섭하며, 모든 법의 自體가 오직 이 一心이기 때문이다”<sup>7)</sup>

라고 하여 모든 존재(諸法)는 바로 마음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이 법이 곧 마음이니 마음 밖에 법이 없고, 이 마음이 곧 법이니 법 밖에 마음이 없다”(此法即心 心外無法 此心即法 法外無心<sup>8)</sup>)라고한 黃檗스님의 <傳心法要>의 가르침을 빌리지않더라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 불법의 세계는 깨침의 세계

결국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왜 굳이 안에서 진리를 구하고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는 것이 옳지 못하는가? 밖으로 구하지 말고 안으로 구하라는 것은 觀 이외에는 없기 때문임을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온갖 합리적 思考로나 知識을 동원하여 자신의 내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觀 以外の 知識이나 哲學的 근거로 한 합리적인 사유로는 마음을 알 수 없다. 아니 깨달을 수 없다. 이는 지식이나 철학적 사실을 근거한 사유도 마음인데 이 사유가 사유자신을 사유할 수 없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이유는 知識의 성격이나 합리적 思考는 밖의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즉 밖의 대상을 겨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觀은 이러한 사유자체 뿐만아니라 의식의 흐름이나 潛在意識, 無意識까지

3) <修心訣> “離此心外 無佛可成” (同上)

4) <修心訣> “願諸修道之人 切莫外求” (同上)

5) <達摩觀心論> “惠可問曰‘若有人 志求佛道 當修何法 最爲省要’ 師答曰‘唯觀心一法 摠攝諸行 名爲省要’ (禪門撮要 鏡虛惺牛編輯 佛母山聖住寺 發行 p. 125)

6) <起信論 海東疏 卷一> “所言法者 謂衆生心 是心則攝一切世間法出世間法” (木版本 p. 十八 下)

7) <海東疏卷一> “所言法者謂衆生心者 自體名法 今大乘中一切諸法皆無別體 唯用一心爲其自體 故言法者謂衆生心也 言是心即攝一切者 顯大乘法異小乘法 良由是心通攝諸法 諸法自體唯是一心” (木版本 p. 十九 上下)

8) “禪門撮要” p. 211 鏡虛惺牛 編輯 佛母山聖住寺 發行





거울에 비친 사물을 보듯이 그 본질까지 분명하게 꿰뚫어본다. 때문에 이 관이야말로 객관적으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관한다”라고 한 것이고, “밖에서 찾지 말라”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관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자가 최종적으로까지 추구하여 깨닫는 최초요 최후의 수행이자 깨침의 길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한다는 데에 있다. 지식의 체계에 의한 모든 학문은 불법에 대한 이해력을 증장시키지만 그것만으로는 불법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佛法의 세계는 깨침의 세계이다. 理解가 아닌 禪定과 智慧로서만이 깨침의 세계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정과 지혜가 곧 觀의 깨쳐들어가는 한가지 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 止觀二門이 道에 들어가는 길

물론 깨달아 들어가는 문은 천차만별로 많다. 그러나 선정과 지혜를 개발하는 觀만이 道에 들어가는 유일한 門이자 통로이다. 학문도 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門중의 하나라고 抗辯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자들과 문답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것은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은 단지 도에 들어가는 문턱까지 갈 수는 있으나 도에 들어가는 문은 아니다. 학문은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단지 학문이라도 지혜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도에 들어가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학문은 결국 지혜개발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문은 도에 들어가는 문이나 길의 역할은 할 수 없다. 오직 觀만이 도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요 길이다.

물론 道에 들어가는 門은 부처님께서 다양하게 설하셨다. 그러나 도에 들어가는 이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 비유를 들자면 한 城에 들어가고자 하면 네개의 문이 있다. 그러나 각기의 문을 따라 성에 들어가보면 그 성은 네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은 많다. 그러나 止觀을 하는 길만이 다른 여러가지의 길을 포섭하는 通門이다.<sup>9)</sup>

그런데 왜 止觀二門만이 道에 들어가는 유일한

9) 元曉撰〈梵網經菩薩戒本私記 卷上〉“三者佛所說法門 雖有多門 而不出止觀二門 謂能融法故 而體於一如法界 故名爲止 雖證於法無非一如 而能照假有法 非無道理 故名爲觀 何故說衆多法門者 有人由別觀故得入道 或有人 由通觀故得入於道 若就道觀者 雖不出止觀二門 而且爲名 令入欲別觀人故說多 雖有多門 而亦入理無二 喻如一城有四門 入門雖非一 而亦入城無二 是義亦爾 若約別門 雖此門非彼門 彼門亦非此門 而若以通門攝別門者 而無非止觀二門 攝無非止觀也 雖有目差別 而以網攝目 目無不網義 如來所說如是三義者 當於此網目義故 以喻爲名故 梵網者 此部別名 經此通名” (韓國佛教全書 第一冊 p. 1-586 中下)

셋째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깨쳐 들어가는 법문이 비록 많은 부문이 있으나 止觀의 두 門을 벗어나지 않으니 그것은 능히 法을 融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一如法界를 체득한 연고로 止라고 이름하고, 비록 法이 一如하지 않음이 없음을 증득하나 능히 假有法이 道理아님이 없음을 觀照하는 연고로 觀이라고 이름한다.

무슨연고로 衆多한 법에 들어가는(법을 체득하는) 門을 설하신 것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은 別觀으로 말미암은 고로 道에 들어갈 수 있으며, 혹 어떤 사람은 通觀으로 말미암은 연고로 道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道에 들어가는 觀에 나아가는 자리면 비록 止觀二門을 벗어나지 않으나 또한 그것으로서 이름한다. 別觀으로 사람들을 道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故로 부처님은 道(法)에 들어가는 많은 門을 설하였다.

비록 道에 들어가는 門은 많으나 또한 道에 들어가는 이치는 둘이 없는 것이다. 비유로 말하자면, 한 城에 네개의 門이 있어서, 들어가는 門이 비록 하나가 아니지만 또한 城안에 들어간 그 城은 둘이 아닌 한 城인 것이다. 이 뜻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別門(別觀)으로 말한다면, 비록 이 문이 저 문이 아니고 저문이 또한 이 문이 아니나 만약 通門(通觀)으로써 別門(別觀)을攝한다





길인가? 그것은 一切法을 모두 融攝하기 때문이다. 이는 달마스님이 “마음을 觀하는 이 한가지 방법이 일체 모든 존재를 총섭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sup>10)</sup>라고 설한 것과 같다. 또 원효스님은 “止의 門에 의하여 모든 존재가 一如함을 체득할 수 있고, 觀이라는 門을 통하여 현상계의 차별상이 道 아님이 없음을 깨칠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라고 설하고 있다.

그러나 止觀二門은 觀의 一門에 지나지 않다. <大乘起信論>에,

“어떻게 止觀門을 수행하는가? 止라고 말한 것은 모든境界를 그치게 하는 것으로서 그 모습(相)을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奢摩他觀의 뜻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觀이라고 한 것은 因緣生滅을 분별하는 것으로 그 모습을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毘鉢舍那觀의 뜻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수순하는가? 이 두가지 뜻으로 점점 수습하면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여 쌍으로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sup>12)</sup>

라고 하여 止는 奢摩他(止)觀이요 觀은 毘鉢舍那(觀)觀”이라고 하여 止는 止觀이요 觀은 觀觀이다. 이 止觀二門이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여 쌍으로 現前하기 때문에 止觀二門은 觀의 一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관은 수행 그 자체

<大乘起信論>은 眞如는 言語의 相을 떠나, 있고 名字의 相을 떠나있고, 대상을 인식(攀緣)하는 心緣相을 떠나있다고 설한다. 이러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sup>13)</sup> 원효스님은 觀智로서만이 가능하다고 설하고 있다.<sup>14)</sup> 觀智는 논리적 이해가 아니다. 오히려 관은 과학하는 마음이나 철학하는 마음 등 어떤 학문이든지 심오한 이치를 사유하든지 어떤 일들을 계획하든지 하는 理性과 탐욕이나 성냄이나 사랑 등의 감성적인 갖가지 생각과 느낌을 逆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이다.

觀 그것은 바로 수행 그 자체이다. 학문이 아니다. 학문을 하면 철학박사나 문학박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깨침의 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척도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학문의 세계는 언어의 세계이다. 언어로는 절대로 진여의 세계에 접근조차도 할 수 없다. 여기에 철학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문학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깨침에는 어떠한 전제도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깨침이란 어떤 전제하에서의 결론일 뿐이다. 깨침의 세계는 언어문자로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학문으로써 접근한다는 것은 직접 체험

면 止觀의 二門이 아님이 없으니, 止觀이 아님이 없음에 攝한다. 비록 그물 눈으로는 개개가 달라 차별이 있으나 그물로써 그물 눈들을 攝하니, 그물 눈이 바로 그물이 아님이 없다는 뜻이다.

여래가 설한 바 이와같은 세가지 뜻은 이 그물과 그물 눈의 뜻에 합당하므로 비유로서 이름을 삼은 연고다. 梵網이라는 것은 이 部の 別名이고 經은 通名이다.”

10) <達摩觀心論> “唯觀心一法 摠攝諸行 名爲省要” (禪門撮要 鏡虛惺牛 編輯 佛母山聖住寺 發行 p. 125)

11) <梵網經菩薩戒本私記> “而體於一如法界 故名爲止 雖證於法無非一如 而能照假有法 非無道理 故名爲觀”(同上)

12) <大乘起信論 修行信心分中 止觀門> “云何修行止觀門 所言止者 謂止一切境界相 隨順奢摩他觀義故 所言觀者 謂分別因緣生滅相 隨順毘鉢舍那觀義故 云何隨順 以此二義漸漸修習 不相捨離 雙現前故。(木版本 海東疏 卷六 p. 四 上)

13) <大乘起信論> “問曰如是義者. 諸衆生等, 云何隨順而能得入. 答曰. 若知一切法雖說. 無有能說可說. 雖念亦 無能念可念. 是名隨順. 若離於念. 名爲得入.” 질문자의 如是義라는 것은 眞如가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 畢竟平等 無有變異 不可破壞하며 또 不可說不可念을 말한다.

14) 海東疏에 “言離於念者, 離分別念. 名得入者, 顯入觀智也”라고 설하고 있다. 말하자면 진여의 세계에 들어갈려면 觀智로만이 가능함을 말한다. 觀智는 수행자의 知로서 現量이다. 이는 언어나 명자와 결합되어 있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언어나 명자와 결합될 수 있는 마음은 모두 比量의 마음이다. 비량은 誤謬知다.





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학문은 간접경험에 불과하며 간접경험이란 언제나 무엇을 매개하거나 전제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학문의 전제는 논리적 사유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이다. 결국 학문은 논리적 이해력은 증장시킬는지 모르나 깨달음에는 도달할 수 없다.

참으로 아무 것도 전제하는 것이나 매개하는 것 없이 또한 어떤 무엇도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 깨친 것이야말로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길로 가는 데는 앞에서 말한 觀智로만 가능할 뿐이다. 觀智는 觀照이기도 하다. 六祖 慧能스님은 “부처란 무엇인가? 이는 깨어있음을 말한다. 그러면 깨어 있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觀照이다. 觀照는 무엇인가? 바로 반야지혜이다”<sup>15)</sup>라고 <金剛經五家解>에서 설하고 있다.

觀智란 四聖諦에 대한 直觀 등의, 法에 대한 직관이다. 말하자면 看話, 觀照, 照見<sup>16)</sup> 등으로 모두 廻光返照, 또는 마음을 逆流시키는 것이 바로 觀智이다. 이러한 관지는 言語와 概念, 그리고 언어나 개념에 의하여 대상을 반영하는 것을 떠나 있는 마음 작용이다. 즉, 般若의 작용이다.

이와 같이 수행자의 觀智는 언어와 명자를 떠나 있고 언어와 명자와 結合한 마음이 대상을 반영하는 心緣相도 떠나 있는 온전한 不生滅心 즉 반야의 작용인 現量인 것이다. 그래서 <楞嚴經>에 처음 수행해 들어가는 마음은 不生滅해야만 된다고 설하고, 그

不生滅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야만이 궁극에 가서는 不生滅의 佛果를 증득함을 설하는 것이다<sup>17)</sup>. 이것이 수행자의 觀智이다.

그런데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觀照一門과 看話徑截門과의 관계다. 이 문제는 ‘孫侍郎求語’라는 慧謙의 法語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즉,

“修行의 요점은 止觀과 定慧를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法이 空함을 비추어 보는 것을 觀이라하고 모든 분별을 쉬는 것을 止라고 한다. 止라는 것은 妄을 깨달아 멈추나 애를 써서 억지로 눌러 끊는 데에 있지 않고, 觀이라는 것은 妄을 보아 깨달으나 마음을 내어 억지로 고찰하는 데에 있지 않다. 대상에 대하여 부동함을 定이라고 하나 힘으로 制止한 것이 아니고, 성품을 보아 迷하지 않음을 慧라고 하나 애써 구한 것이 아니다. 비록 그렇지만은 자신의 수행의 得力과 不得力을 스스로 검토하여 그 상태(消息)를 알 때에야 可하다. 그러나 이 외에 看話一門이 있으니,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止觀과 定慧도 자연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 法은 大慧書 答中에 갖추어져 있다. 그것을 보라.”<sup>18)</sup>

라고 하여 “止觀과 定慧가 看話一門 안에 있다는 것”은 看話禪도 止觀定慧를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 온 수행법은 止觀이다. 그러나 印度的 止觀수행법이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인의 기질이나 문화 풍습 등에 맞게 변형된 수행법이 看話一門이라고 보고 싶다. 看話禪이 지극히 中國

15) “佛即是覺 覺即是觀照 觀照即是智慧 智慧即是般若波羅蜜多”

16) <般若心經>에 “照見五蘊皆空”이라고 설하고 있다.

17) <楞嚴經卷第四> “應當先明 發覺初心 二決定義 云何初心 二義決定——應當審觀 因地發心 與果地覺 爲同爲異 阿難 若於因地以生滅心 爲本修因 而求佛乘 不生不滅 無有是處——得元明覺 無生滅性 爲因地心 然後圓成 果地修證” (世宗王朝國譯藏經 楞嚴經全十卷 諺解本 p. 224--228 參照)

18) <孫侍郎求語> “修行之要 不出止觀定慧 照諸法空曰觀 息諸分別曰止 止者悟妄而止 不在用心抑絕 觀者見妄而悟 不在用心考察 對境不動是定 非力制之 見性不迷是慧 非力求之 雖然自檢工夫 得力不得力 消息知時乃可耳 此外有看話一門 最爲徑截 止觀定慧 自然在其中 其法具如大慧書答中 見之” (曹溪真覺國師語錄 韓國佛教全書 第六冊. p. 6-40.)





的이지만 이제는 韓國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히려 北方佛敎圈의 보편적 수행법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깨닫는 길은 오로지 觀照밖에 없다는 것은, 不立文字의 체험의 세계이므로 경론이나 어록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학문의 대상이고 그렇다면 강원의 공부는 결국 학문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교육 기관이 아니겠는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金剛經>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法은 不可說 不可取 19)”라고 하여 학문의 접근으로는 불가능함을 말한다.

또 六祖 慧能스님은 “이 經을 의지해서 수행하여 바야흐로 성불한다.”<sup>20)</sup>라고 하니, 經은 法이고 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果라는 깨침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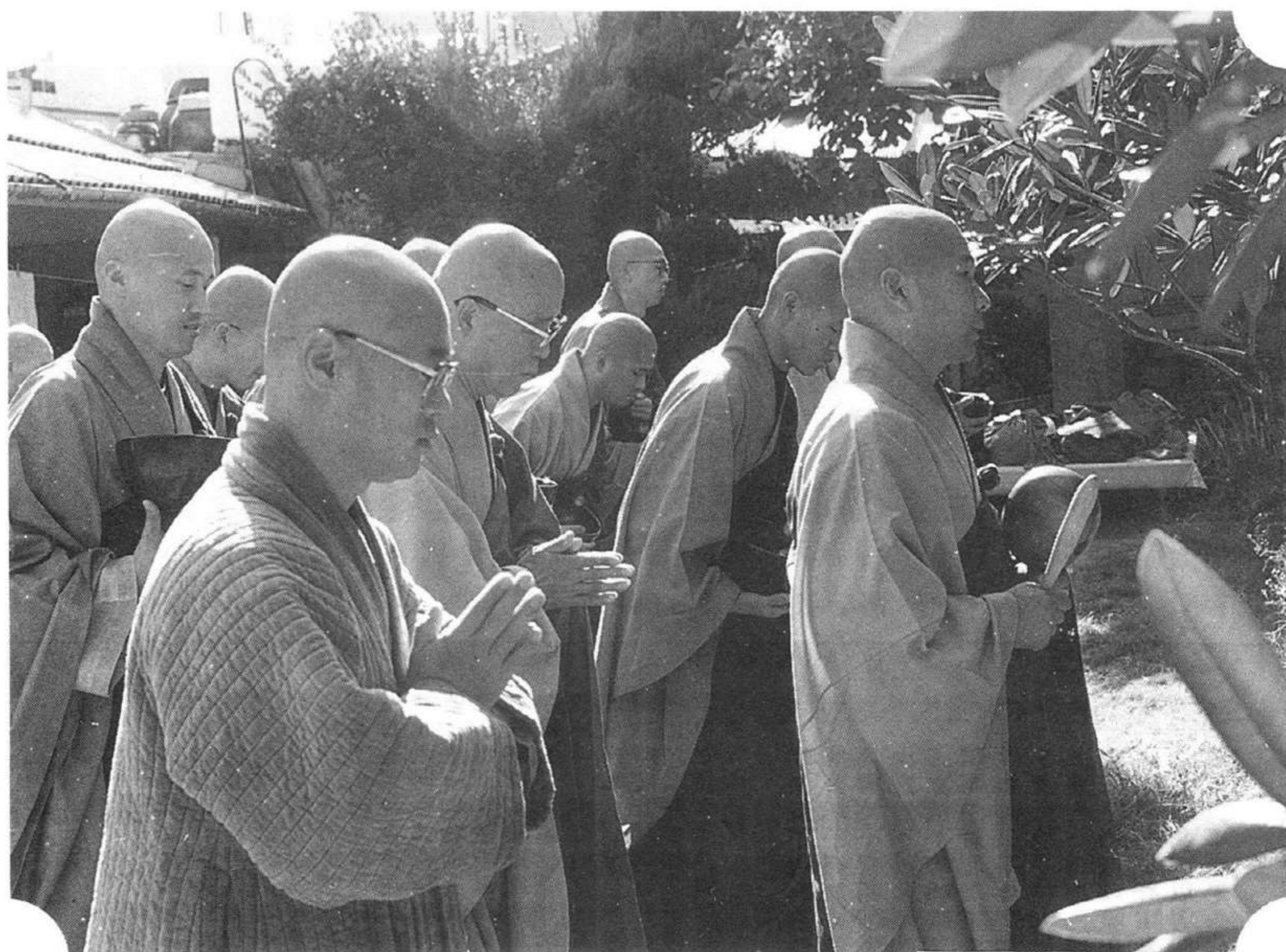
그러므로 경론이나 어록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학문의 영역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물론 학문의 영역으로 할 수 있으나 깨침을 전제로 한다면 학문의 영역을 멀리 벗어나 있어서 학문의 영역은 아니다. 이 문제는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항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



19) 金剛經 無得無說分 第七

20) <金剛經> 依法出生分 第八의 六祖解說의 의하면 “三世諸佛 皆依此經修行 方得成佛”라고 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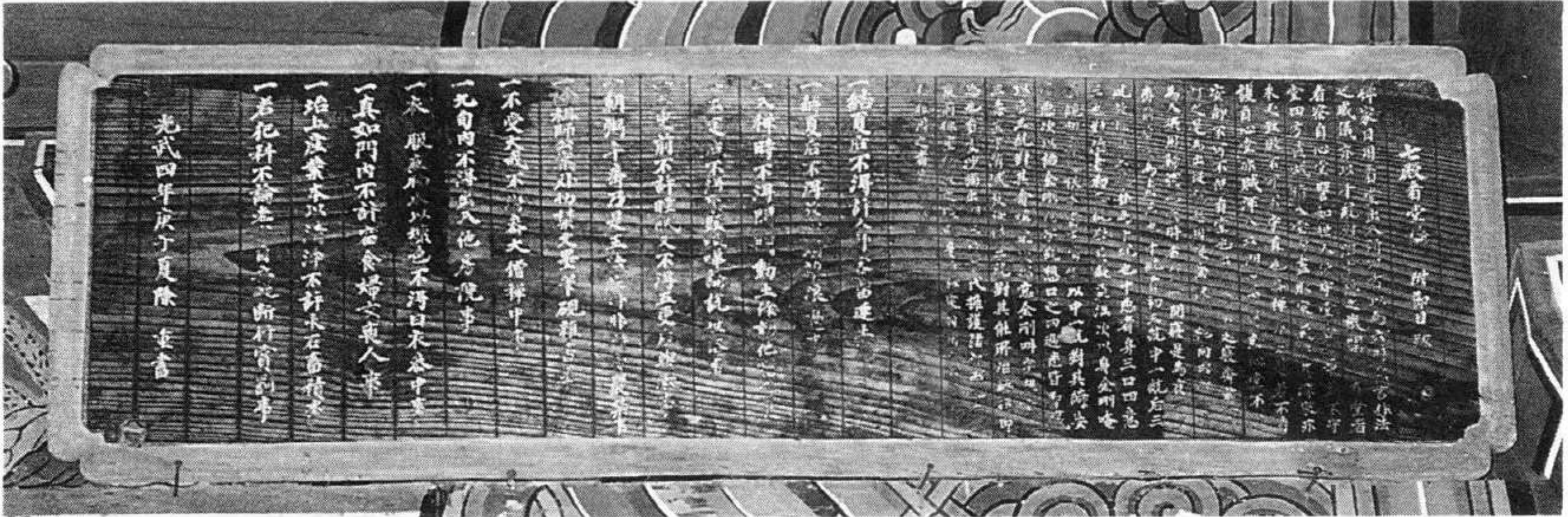


## 광주로 탁발 나가다

지난 11월 1일 울주(보성) 스님, 강주 스님 등 사중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강원 전 대중이 광주에서 탁발을 했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의 탁발의식에, 국제선원에서 정진 중인 대만 스님들과 미얀마에서 수행하신 바 있는 강주 스님의 자문을 받아 현대적이면서 여법한 탁발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날 탁발은 원각사에서 삼귀의, 반야심경으로 고불식을 올린 후 각자 발우를 들고 안행하여 대인시장, 금남로 지하상가, 충장로를 지나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아진 탁발금은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 전액 보시했습니다.





七殿看堂論 附節目跋

禪家日用看堂出入所以者以爲六時默言作法之威儀亦以十統對治十惡之機關也看堂者看察自心堂譬如世人使守堂舍之事若不守堂四方盜賊暗入堂內盡取家藏使其渾家亦未必致敗不可不守直也參禪亦如是若不看護自心堂亦賊渾入六門之內擾動心堂不能安靜不可不使看堂也出入者自起寢齋前向外打之是爲出從體起用從齋後開枕向內打之是爲入攝用歸體也六時者焚修開寢是爲夜三夕齋前是爲晝三也十統者初三統中一統后三統放禪時三統合爲十統也十惡者身三口四意三也對治者初三統對其殺盜淫次以身金剛唵字觀想身之根本當下消滅以中一統對其綺妄兩惡次以語金剛阿字觀想口之四過悉皆即滅以後三統對其貪嗔痴次以意金剛吽字想意之三毒直下消滅放禪時三統對其能所治解碍即妄也看堂沙彌出門三拜者代擁護諸神而比丘大衆前珍重致敬之禮歟是乃禪家日用之具亦不離於體用之者豈徒然哉

- 一 結夏后不得許入外客留連止宿事
- 一 解夏后不得放心煩雜浪過事
- 一 入禪時不得開門動止作動他心意事
- 一 出定后不得聚頭喧嘩論說世俗事
- 一 三更前不許睡眠又不得五更后盪漱事
- 一 朝粥午齋乃是正法此外非時食嚴禁事
- 一 除祖師公案外切禁文墨筆硯雜書事
- 一 不受大戒不得大僧禪中事
- 一 九旬內不得出入他房院事
- 一 衣服座物本以壞色釜不得白衣參中事
- 一 眞如門內不許宿食婦女喪人事
- 一 始上產業本以清淨不許禾石畜積事
- 一 若犯科不論老少自立繩斷行賞罰事

光武四年 庚子夏除 重書

♣... 칠전간당론은 三日庵 처마 밑에 먹물을 칠한 목판(가로 1m10cm, 세로 33cm)에 흰 물감으로 씌여 있는 송광사 옛 청규 현판이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글자가 퇴색하고, 그 뜻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원문과 간략한 해석을 실는다.



## 칠전간당론

- 상대에서 지켜야 할 13가지 청규를 끝에 붙임-

선가 일용공부하는 중에 간당을 출입하는 이는 여섯 때 가운데서 묵언하고 여법히 작법하며, 또한 십통으로써 십악을 물리치는 관건으로 삼아야 한다. 공부인은 자기 마음 살피기를 비유컨대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지키는 일과 같이 하여야 하며, 만일 집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사방에서 도적이 암암리에 집안에 들어와 집안 소장물을 다 가져가서 집을 어지럽게 하나니 폐가가 되지 않게 불가불 굳게 지켜야 한다. 참선 또한 이와 같아서 만일 자기 마음자리를 지켜서 보호하지 못한다면 또한 도적이 육문 안으로 함부로 들어와 마음자리를 요동시켜서 안정치 못하게 하나니 불가불 잘 지켜야 한다. 출입자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부터 공양 전까지 향외타지함은 본체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데서 따라 나오는 것이고, 공양 후부터 목침을 깔 때까지 향내타지함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데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여섯 때는 이부자리를 펴서 부터 아침 예불 때까지 밤 세 때이고 공양 전후 낮 세 때이다. 열가지 통은 처음에 세 통이 있고 가운데에 한 통이 있고 이후에 세 통이 있으며 방선할 때의 세 통까지 합하여 열가지 통이 된다. 열가지 악은 몸으로 세가지, 입으로 네가지, 뜻으로 세가지를 범하는 것이다. 물리친다는 것은 처음 세가지 통이 살생, 투도, 음행을 상대로 하니 신금강 몸자로서 몸의 근본을 관상하는 즉시 소멸한다. 가운데의 한 통은 기어, 망어, 양설, 악구에 해당하니 어금강 아자로서 입으로 짓는 네가지 허물을 관상하는 즉시 모두 소멸한다. 이후 세가지 통은 탐, 진, 치 삼독에 상대하니 의금강 흠자로서 뜻으로 짓는 허물(삼독)을 관상하는 즉시 소멸한다. 방선할 때의 세가지 통은 능소 치에 상대하니 장애를 풀어버린 즉시 없어진다. 공부하는 간당을 사미가 출입할 때 삼배하는 것은 옹호제신을 대신하여서 비구 대중스님 앞에 진중하고 지극한 공경을 표하는 예법인저, 이것은 선가 일용의 본체와 작용을 여의지 않고 갖춤이니 어찌 가볍게 여기리요.

- . 여름결제 중에는 객이 들어와서 계속 머물지 못한다.
- . 해제 후에는 마음을 풀어놓고 번잡하게 보내지 말라.
- . 입선 중에는 문을 열고 들락거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말라.
- . 출정 후에는 둘러 앉아서 떠들며 세속일로 시비를 논하지 말라.
- . 삼경 전에는 수면을 취하지 말며 또 오경 후에는 손씻고 양치질을 하지 못한다.
- . 아침죽과 사시공양이 정법이니 이외에는 먹는 일을 엄금한다.
- . 조사공안 외에 지필묵연 기타 잡서는 일체 금한다.
- . 비구계를 받지 않은 이는 대중 참선방에 동참하지 못한다.
- . 90일 안거 중에는 다른 처소에 출입하지 말라.
- . 승복과 좌복은 본디 물을 들여야 하며 흰옷을 입고 대중과 함께 하지 못한다.
- . 진여문 안에서는 부녀 및 상인의 숙식을 불허한다.
- . 대 위는 공부처소로서 본디 청정한 곳이니 화석축적을 불허한다.
- . 만약 허물을 범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입승에게 상벌을 단행케 한다.

광무4년 (1900년) 경자 여름안거 해제일에 다시 쓰다.



# 회상

연해/사집



**산**사의 겨울은 길다. 송광사는 지형상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인데다 서향이 라 길고긴 겨울을 보내야 한다.

스님네들 말 중에 겨울 한철농사(冬安居)로 일년 먹고산다는 말이 있듯이 동안거살림은 일년 중 가장 소중하다. 이러한 동안거를 맞이하여 강원과 선원 스님들이 속속 모여든다. 결제일 전 며칠간은 도량 청소예 분주하다. 아침공양 후 모두 빗자루 하나씩 들고 전 도량의 낙엽을 쓸어내기에 바쁘다.

딱따구리도 덩달아 겨울용 등지를 마련하는지 나무 쪼는 소리가 요란하다.

후다닥 20분 정도 지나 청소를 끝마치면 제법 쌀쌀한 날씨에 손을 비비며 지대방으로 종종걸음친다.

나는 느지막이 해청당으로 발길을 돌리다가 우화각(일주문을 지나 계곡을 넘는 누각다리)의 맑고 차가운 계곡물을 바라보는 즐거움에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 우화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사계에 따라 그 멋이 다르지만 특히 요즘같은 초겨울 날은 영지(靈知 무엇이나 벨 수 있는 시퍼런 칼날같은 직관)를 발하는 듯하다.

몇 년 전 청도 운문사 사리암 밑에서 암자(산비탈 중턱에 위치함)를 바라보며 비슷한 멋에 취했던 적이 있었다.

80년대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획기적 발전(여러요인들 중 가장 큰 요인은 노동자의 임금착취)이 있었던 반면 정치, 인권에 있어서는 탄압과 항거로 점철된 시대였다. 아울러 학생운동도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대통령 직접선거와 여소야대정국으로 다소 누그러지던 것이 민정, 민주, 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모닥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런 와중에 학생이던 나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며 허탈감에 빠져있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운문사 사리암





으로 도피했었다.

부전 스님께 인사하니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승복 바지와 함께 삼천배 참회의 절을 해보라고 권했다. 논리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상에 절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영 내키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절하라'는 스님의 말에 수긍하여 "예 한번 해보지요" 하고 덜컥 대답해 버렸다. 백팔배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나이롱 신자에게 삼천배 참회는 또다른 도전이며 인내력의 시험대였다. 첫날 두어 시간 절을 하니 저녁 공양시간이라 스님은 공양을 마치고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하셨다. 그동안 비구 스님네 방은 여러 번 들락거렸지만 비구니 스님방은 처음이라 영 쑥스러워서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데 "부담갖지 말고 들어 오세요" 라는 말이 방에서 흘러나왔다. 방에 발을 내딛는 순간 깔끔하고 정갈한 방 분위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이곳 저곳을 살펴보다 16절지 종이에 罪無自性 從心起 心若滅是罪亦亡 罪亡心滅兩俱空 時即名爲 眞懺悔 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스님은 나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마시며 "절하는 품이 프로급입니다." 라고 한다. 아울러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다. 물론 가장 궁금한 것은 출가동기였지만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벽에 붙은

쪽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스님은 "죄는 본래 자성이 없는데 마음따라 일어나며 마음에서 멀하면 죄 또한 없는 것이라, 죄도 없고 마음도 멀하여 둘 다 공하면 이때가 곧 이름하여 참된 참회라 한다." 라고 대답하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하니 나도 잘모르니 집에 가는날 함께 상의해 보자한다. 그리고 나서 쪽지를 떼어 책 속에 넣어 무료한 시간에 읽어보라며 건넨다. 박삼중 스님이 재소자가 스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묶은 책인데 제목과 책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고 책 속에 든 쪽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쪽지를 읽고 또 읽어보며 어렴풋이나마 이것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놀란 가슴을 안고 삼천배를 마치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은 출가자의 길에 들어섰으니 참으로 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출가한 후 몇 년이 지난 요즘에야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불조의 가르침을 알듯말듯하다. 어찌든 그때 비구니 스님과 의논해 보자는 계송을 결국 숙제로 남기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꼭 찾아가 보리라.



# 사회복지에 대하여

보혜/송광종합사회복지관

**요**즘 우리들은 사회복지라는 말을 여러 분야에서 자주 듣게 된다. 들으면서 한번쯤은 정말 "사회복지가 무엇인가" 반문을 해보았을 것이다.

사회복지는 사회와 복지라는 개념의 합성어로서 '사회'는 본래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즉 인간의 공동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하고, '복지'는 쾌적한 상태, 즉 안녕과 관련된 상태나 조건, 특히 건강, 행복, 번영 등의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사회복지 개념은 인간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이며 인간의 요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이다. 또한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론과 실천성을 지닌 공시적 유동 개념이자 사회성이 내포된 개념으로 평등과 보장을 의미하면서 기존 사회 구조에의 적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개념을 바탕으로 한 우리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과 한

생명의 절대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고급문화의 접촉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지역문제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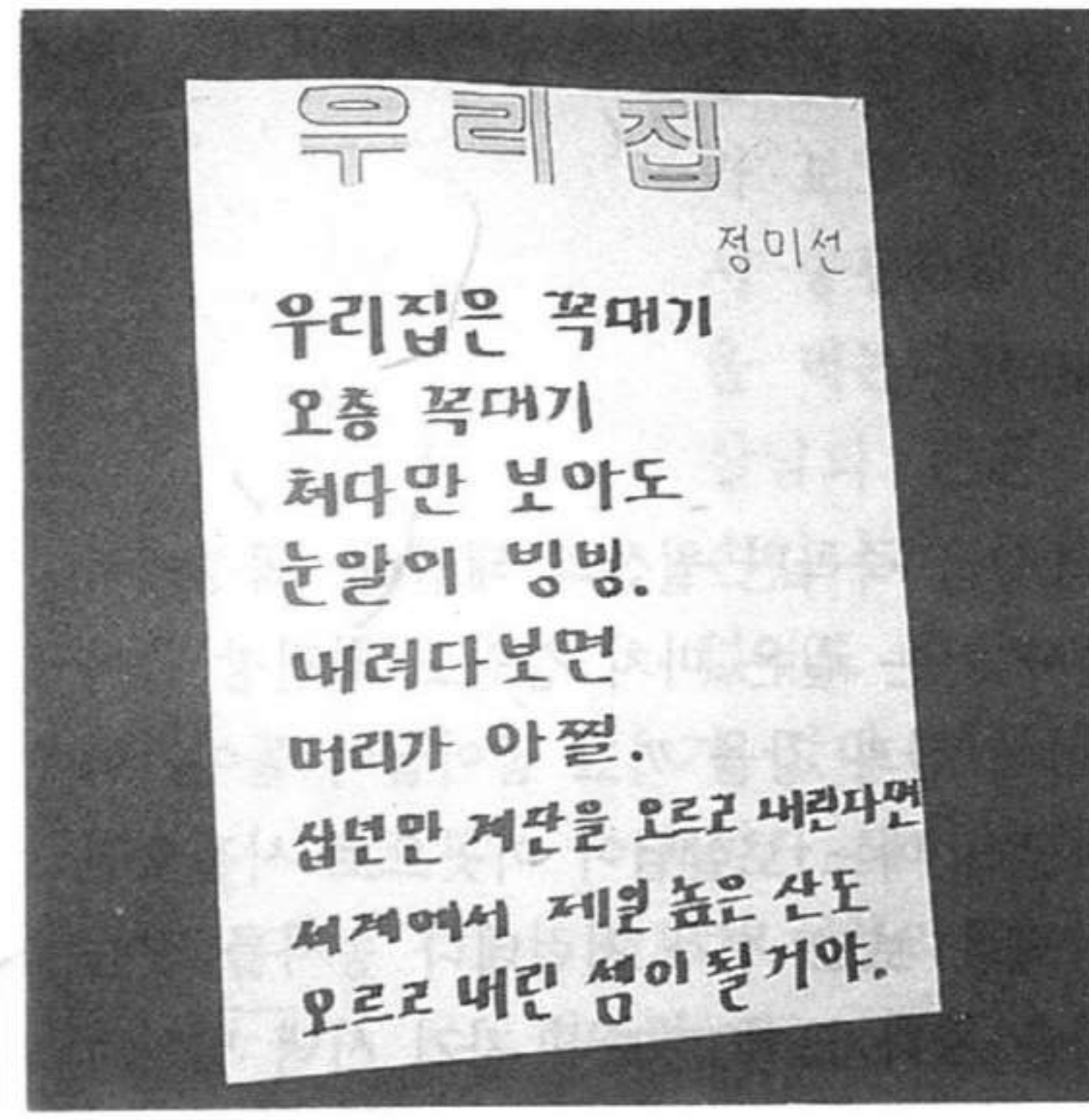


“  
내 내  
생명 생명  
자유롭게 온전하게  
함께 하는 세상”

생각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함으로써 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는 설립목적を 가지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자리아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 생명 온전하게, 내 생명 자유롭게, 함께 하는 세상”을 관훈으로 아동복지(송광어린이집, 아동기능교실, 아동도서관, 아동캠프, 어울림마당), 가정복지(직업교육, 취업, 부업알선, 주부취미교실), 청소년복지(청소년독서실, 청소년캠프, 가을콘서트), 노인복지(노인위안잔치, 노인나들이, 무료급식, 월동준비), 지역복지(주민교육, 소극장운영, 장학금지급, 김장서비스, 시설제공), 지역간호사업(물리치료실 운영, 척추교정, 무료수지침 시술, 뇌염예방접종, 건강상담), 문화예술사업, 후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라 하면 다음 세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불교계 기관이나 신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그 활동내용, 둘째 불교경전에 근거하여 중생구제를 설하는 모든 교





의를 불교사회복지사상이나 이념으로 재해석하는 것, 셋째 불교인 전용의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원조사업을 말한다.

우리들은 흔히 자비, 보시, 복전 등의 개념을 사회복지 실천과 동일시하고 그 말들에 너무 익숙해서 마치 오래 전부터 실천해 온 것처럼 말하곤 한다. 그러나 '보시해야 한다'는 것과 '지금 보시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엄밀히 다른 데도 우리들은 자주 혼동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요양원, 정신장애자시설 등 많은 사회사업을 하고 있으나 즉흥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교사회사업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불교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시급하고 합리적이고 집약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서비스가 제

공될 때는 계속적으로 신뢰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성과 책임성이 따라야 한다.

앞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중앙집중제에서 지방자치체제로 변하면서 사회사업도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 것이 민간주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럴 때 우리 불교는 각 교구본사가 사회복지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사회복지라는 명분을 세우지 않더라도 사찰에 찾아오는 신도를 관리하면서 상담,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님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전문인이 되어서 불교사회복지가 더욱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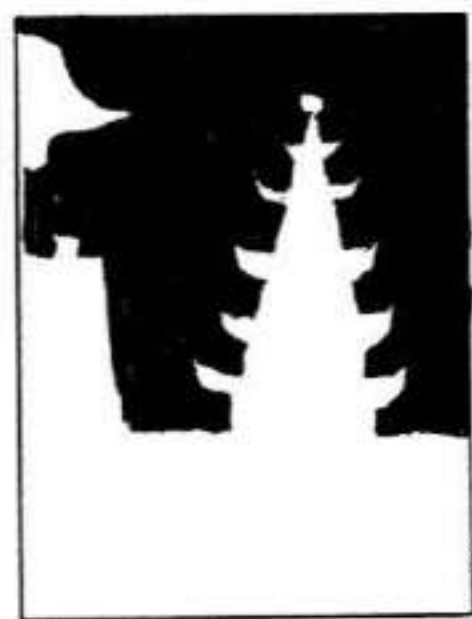


# 태안사 두 보물

본연/치문

**전** 남 곡성군 죽곡면 월산리 태안사. 곡성에서 태안사 가는 길은 마치 강원도 최전방 들어가는 길같아서 산과 강을 끼고 굽이굽이 돌아가야 합니다. 원달리 어느 보살님이 이곳으로 시집오면서 비탈진 밭을 보고 누가 저런데다 농사를 짓는담 하고 혀를 찼다가 알고 보니 자기 시대 밭이더라고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겨우 경운기나 다니던 길이 몇 년 전에 태안사 큰스님이 오시고 나서 2차선으로 원달리까지 포장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절 앞 유흥업소는 볼 수 없고, 잡목이 우거진 숲 속으로 난 비포장 길을 오리쯤 올라가자면 다람쥐도 볼 수 있고 청살모도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유형문화재 82호인 능파각을 지나면 동리산 태안사라는 현판이 붙은 일주문을 만나게 됩니다. 1925년 최남선 선생이 먼 길을 찾아와 '신라 이래의 이름 있는 절이요, 또 해동에 있어 선종의 절로 처음 생긴 곳이다. 아마도 고초(古初)의 신역(神域)같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742년 何許三神僧이 창건했으며 구산선문 중 하나인 동리산파의 중심 사찰로 혜철국사가 머물렀고, 고려 태조 때 광자대사



윤다(廣慈大師允多)가 132칸의 당우를 짓고 대사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바람같이 살다 가신 분들의 부도탑이 보이고 더 올라가면 선원이란 현판이 붙은 큰방이 있고, 그 뒤에는 배알문이라는 특이하게 생길 문 안에 정과 망치로만 다듬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정교한 혜철국사 부도탑(보물 제273호)이 있습니다. 근세의 선지식이신 전강 스님이 지나가다 깨쳤다는 다리와 청화 스님이 100여 일 넘게 미숫가루 몇 수저만 드시고서 정진하셨다는 토굴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태안사의 자랑은 이런 역사 속의 보물 말고도 진짜 살아 있는 보물이 둘 있다는 것입니다. 행자 시절 2시 30분에 일어나 억지로 몸을 일으켜 정량으로 향하면 정량 근처 창고에서 어김없이 낭랑히 경 읽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 경을 읽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혼침에 빠져 있구나 하는 자책에 잠이 확 달아나고 신심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2시 30분, 아니 자정 부터 지장경을 읽는 주인공은 노처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연세도 모르고 그저 처사님에다 연세가 드셨기에 노자하나 붙여서 노처사님이라 부르는 분은 지장경을 언제부터 독



송했는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매일 해가 뜨고 달이 뜨듯이 매일 같은 시간에 3시간 반가량 지장경을 독송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석구석 손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도량을 돌보면서도 지장보살을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말 그대로 행주좌와, 쪽마루 구석에서도 쫓그리고 앉아 지장보살하고 송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젊어서 스님이 되려고 했었지만 천수경을 못 외워서 못됐다는 소문이 있지만, 제 귀로 분명히 들은 것은 다음 생에는 꼭 스님이 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갓 들어온 어린 행자를 봐도 꼭 먼저 인사하는 노처사님의 얼굴에는 악이란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알아주거나 무시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일 하시며 몸으로 수행이 무엇인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인은 도인인데 좀체 드러내지 않는 도인, 수행은 수행인데 드러내지 않는 수행, 그래서 우리는 태안사의 살아 있는 보물이라 부릅니다.

또하나의 보물은 공양주 보살입니다. 공양주 보살님의 고향, 아니 태어난 곳은 바로 당신이 피곤하면 눕는 방 바로 옆방입니다. 옛날 한때 스님도 결혼할 수 있었던 시절 태안사 원주 스님이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시집가서 몇 년 산밑 마을에 산 것 말고 태안사에서 죽 살아온 산증인입니다. '마을로 시집갈 때가 처음으로 태안사를 벗어난 것이지. 지금 공양간에 걸려 있는 가마솥은 내가 어릴 적에도 있었지. 6.25 때 법당은 불타고 지금 있는

자기를 알아주거나 무시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일 하시며 몸으로 수행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인은 도인인데 드러내지 않는 도인, 수행은 수행인데 드러내지 않는 수행, 그래서 우리는 태안사의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릅니다.



법당은 아래 봉서암에서 옮겨온 것이지. 옛날 스님네 알뜰하게 살림했지. 밖에 스님이 나가시면 밖에 나간 스님이 끼니를 거른만큼 쌀을 모아 그것으로 땅을 샀지. 태안사와 송광사는 같은 사람이 지었다고 하지. 태안사에서 아침에 죽먹는 것을 송광사 스님네가 보고 좋다고 배워가서 송광사도 아침에 죽을 먹는다고 하지.' 보살님의 손은 요술쟁이 손입니다. 반찬거리가 없어도 텃밭에 가서 뭔가 갖다 만들면 훌륭한 요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신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 보살님은 요술쟁이입니다. 보살님 머리 속에는 이번 법회는 몇 명쯤 올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다음 법회에는 텃밭에서 무엇을 갖다 어떤 반찬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이 없는 분, 태안사를 거쳐간 스님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행주좌와에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아는 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미울의에 '먹물웃을 입고 머리를 깎았으나 수행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비록 머리를 기르고 먹물웃 입지 않아도 수행자가 있다' 한 대목은 바로 태안사의 살아있는 두 보물을 두고 한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소나기가 한차례 지나가면  
 동구 밖 어귀에 어김없이 둥그런 무지개  
 가 걸린다는 무지개마을!

그 마을 너머에 있는 도성암을 향해 들길을  
 접어들었다. 감나무 맨 꼭대기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 몇 개만 빈 농가를 지키고 있는듯  
 무지개마을은 한낮인데도 조용하기만 했다. 비  
 탈진 언덕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논밭에는

고구마를 캐  
 거나 마늘  
 을 심은  
 곳에 비닐  
 을 씌우고  
 있는 농부  
 들의 모습  
 이 보였  
 다. 열심히  
 땀흘리  
 며 일하고  
 있는 그분들

의 걸을 지나가자니 가슴 속에는 까닭모를 부  
 끄러움이 있다. 걸망을 짊어진채 농로를 터벅터  
 벱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승의 모습이 신기해  
 보였는지 잠시 일손을 놓고 허리를 펴 이쪽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한다. 사시사철 흙을 의  
 지하여 땀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무지개마을  
 사람들!

고달픈 농사일로 아픈 허리에 그 혼한 파스  
 한 장 사서 붙일 줄도 모르고 거칠어진 손에  
 화장품 하나 사서 바를 줄도 모르고 사시는 분  
 들이다. 그렇게 해서 지은 공양물이 지금 삼보  
 에 올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분들의 검소한 삶  
 을 대할 때면 나도 모르게 숙연해  
 진다. 시은(施恩)의 무게가 이런  
 것일까! 들판에 추수가 끝났다고  
 는 하지만 여전히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 시골의 늦가을...



그 속으로 어깨에 걸망을 짊어

지고 느릿느릿 걷고 있는 풋중의 뒷모습이 그  
 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인간의 가장 지  
 고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이웃을 위해 헌신하  
 겠다는 그 일념으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들에게 보내는 따스한 연민과 동경의 눈길이었  
 을까? 아니면 바라드바자와 같이 농사는 짓지  
 않고 태평히 놀고 먹는 중이라는 힐책의 눈길

이었을까?  
 무상한 세  
 월 속에서  
 영원한 진  
 리의 길을  
 찾아 떠나  
 는 나그네  
 로서의 떳  
 떳하고 당  
 당한 기상  
 과 자부심  
 보다는 먼

# 무지개마을을 지나면서

도선/치문

저 부끄러움이 앞섰다.

늘 머리맡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한두 구절씩  
 만 읽어도 좋은 경전 슷타니파타에는 발가는  
 농부 바라드바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께  
 서 마가다국의 남쪽 산기슭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머무르실 때의 일이다. 부처님께서 아  
 침 일찍 탁발을 나가셨다. 그때 발가는 사람  
 바라드바자는 일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부처님이 그곳으로 가자, 바라드바자  
 는 부처님에게 "수행자여! 우리는 발을 갈고  
 씨를 뿌린다. 발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는  
 다. 그대도 우리처럼 발을 갈고 씨를 뿌려라.  
 발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어라" 부처님께서  
 는 조용히 바라드바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농부여! 나 또한 그대처럼  
 발을 갈고 씨를 뿌린다. 발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는다" "그러나 나는 그대가 농사를 짓  
 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대는 무엇으



로 농사를 짓는가?" "농부여! 나에게는 신앙이 씨앗이요 고행이 비다. 그리고 지혜가 나의 쟁기요,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이 그 쟁기의 자루다. 그리고 끈은 마음은 쟁기를 매는 밧줄이요, 매사에 생각이 깊은 것은 쟁기의 보습이다. 몸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나는 이런 농사를 지어서 마침내 저 불멸의 과일을 열매맺게 하나니 나처럼 농사를 짓게 되면 그대도 모든 고뇌로부터 해방되리라." 부처님께서 농부에게 진리로서 양식을 삼고 진리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당당히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나는 무엇으로 양식을 삼고 있는가? 나는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였는가? 이런저런 상념으로 농로를 벗어나 암자로 가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는 산길에는 이미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짐채만큼 커다란 바위 밑에서 흘러나오는 약수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남해안의 조그마한 암자! 요사채 뒤편의 작은 텃밭에는 노랗게 익은 유자 향기가, 불어오는 해풍과 어울려 암자를 찾아드는 나그네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이끼 낀 기와지붕과 감나무 밑에 놓여있는 장독대의 구수한 된장맛은 여전한데 몇 년만에 찾아뵙는 노스님의 모습은 많이도 변한 것 같다. 세월의 흐름 앞에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손이 없어서 따지 못했다는 장독대 뒷편의 늙은 감나무에 올라가 한참동안 감을 따고나니 어느덧 석양빛이 남해 바다를 붉게 적신다. 빈방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나서 노스님 방에 들어가 스님께서 따라주시는 유자차 한 잔을 마시니 먼길 온 피로가



말끔히 가신 것 같았다. 스님께서 직접 만드셨는지 유자향기가 진하다. 지금 저쪽 바다 건너 맞은편의 보리암에 있는 해만스님은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

방학동안 보리암에 가서 함께 기도하자며 행각에 나섰던 도반스님을 혼자 보리암에 남겨두고 나만 이곳으로 왔다. 지저분하고 끈적끈적한 다각실 마루바닥을 무릎을 꿇은 채 두손으로 닦으며 묵묵히 청소하던 해만스님, 행각 도중에 "스님 다음에는 어느 곳으로 갈까요?" 하고 물으면 "스님 가는 데로 갈게요" 하고, 음식점에서 "스님 우리 뭐 먹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스님 먹는거 먹을게요" 해서 우리는 손칼국수를 아주 맛있게 먹은 적도 있는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스님이다. 기도 열심히 하신 그 공덕으로 조용한 가운데에서 공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동안이 되시길 빌어본다. 새벽 도량석을 끝내고 깜박 잠들었다. 청아한 산새소리에 잠을 깼다. 푸른솔 사이로 그윽히 내려다 보이는 어촌의 아침! 잔잔한 아침 바다 위로 작은 통통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다.

가난하지만 결코 궁색하게 살지 않는 무지개마을 사람들처럼,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 계절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무지개마을을 지나간다면 그때는 꼭 "농부님! 수고하십니다. 올 농사 잘 됐어요?" 하고 가벼운 인사말이라도 건네면서 부끄럽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갈 수 있는 조금은 삶의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그런 수행자가 되기를 꿈꿔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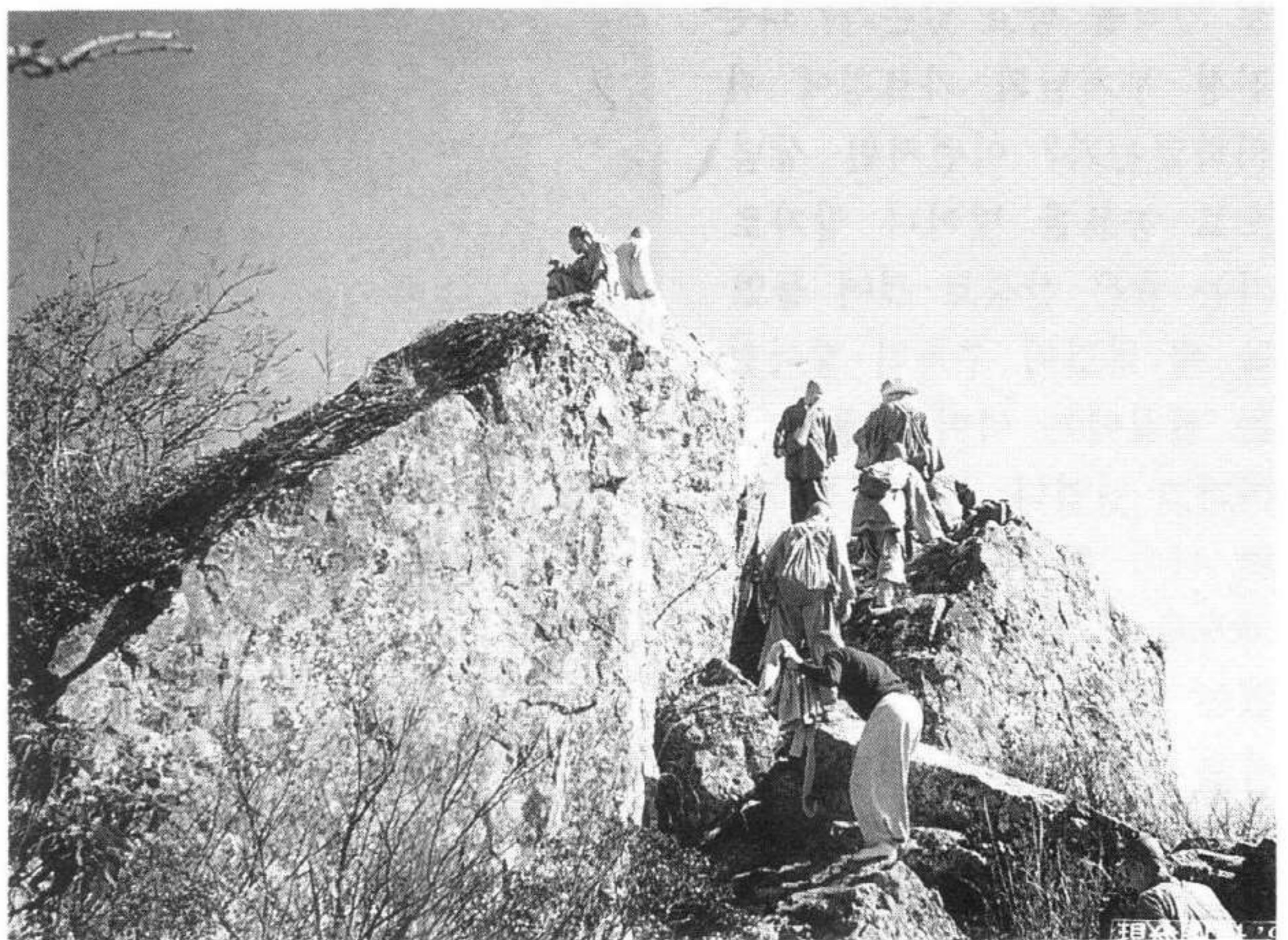
#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도반

정왜/총무 용화사

**따**스한 가을날 오후 고향 초가집 지붕 위의 감들이 생각나는 시간에 아주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송광사 보적 스님과 보원 스님, 보문 스님이 바쁜 중인데도 용화사에서 방위 복무 중인 보철스님을 만나보러 온 것이다. 정말로 흐뭇한 사형사제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보적 스님과 나는 강원에 있을 적에 도반이고 보원 스님은 고향이 같아서 더욱 반가웠다. 우리는 저녁 늦게까지 차를 마시며 산방한담을 나누었다. 도반들의

소식을 들으며 공부 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반갑고 혹 아프다거나 속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무



척 아팠다.

보적 스님과 나는 내 방에서 쉬면서 밤새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돌이는 미래사까지 걸으며 아침 포행을 즐겼다. 새벽 길은 어둡고 컴컴했지만 송광사에서 포행하던 기분이 새롭게 나서 무척 좋았다.

용화사 산책 코스를 잠시 소개하고자면 관음암 오는 길, 관음암에서 용화사 오는 길, 용화사에서 미래사 가는 길이 있다. 전에 어느 유명한 시인이, 그냥 시인이라고 하는 것 보다 유명하다고 해야 산책로가 더욱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한다. 그 유명한 시인이 관음암 가는



길에 대해 쓴 시가 있는데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다. 그리고 용화사 올라 오는 길, 자갈을 밟으며 저 수지를 바라보며 걷는 이 길은 특히 가로등이 켜있는 밤에 더욱 좋다.

우리는 용화사에서 미래사로 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용화사는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온다. 어느덧 작은 언덕에 오르니 새벽이 밝아왔다. 나는 이곳에 오면 바로 내서 있는 여기가 극락임을 느낀다. 마차가 한 대 지나갈 정도의 길, 길 주위에 뻑뻑히 들어찬 소나무, 가파르지 않아서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소나무 숲 사이로 멀리 보이는 호수 같은 바다,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섬들...

말없이 미래사까지 갔다. 이런 때 말은 소음이 되기 쉽다.

범당에 들어가 삼배를 하고 나오려는데 보적 스님이 좌복을 깔고 앉으니 차마 그냥 나올 수 없어 나도 좌복을 깔고 앉았다. 웬걸 앉자마자 나의 위대한 머리가 자꾸 부처님께 끝없이 절을 하기 시작한다. 지난밤 얘기를 나누느라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이다.

한참을 졸다 마침내 나는 머리를 범당 바닥에 쿵하고 짚고 말았다. 아마 보적 스님은 들었으리라, 돌 떨어지는 소리를. 나는 무안하고 미안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앉아 있으니 시간이 얼마나

나는 이곳에 오면 바로 내서 있는 여기가 극락임을 느낀다. 마차가 한 대 지나갈 정도의 길, 길 주위에 뻑뻑히 들어찬 소나무, 가파르지 않아서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소나무 숲 사이로 멀리 보이는 호수 같은 바다,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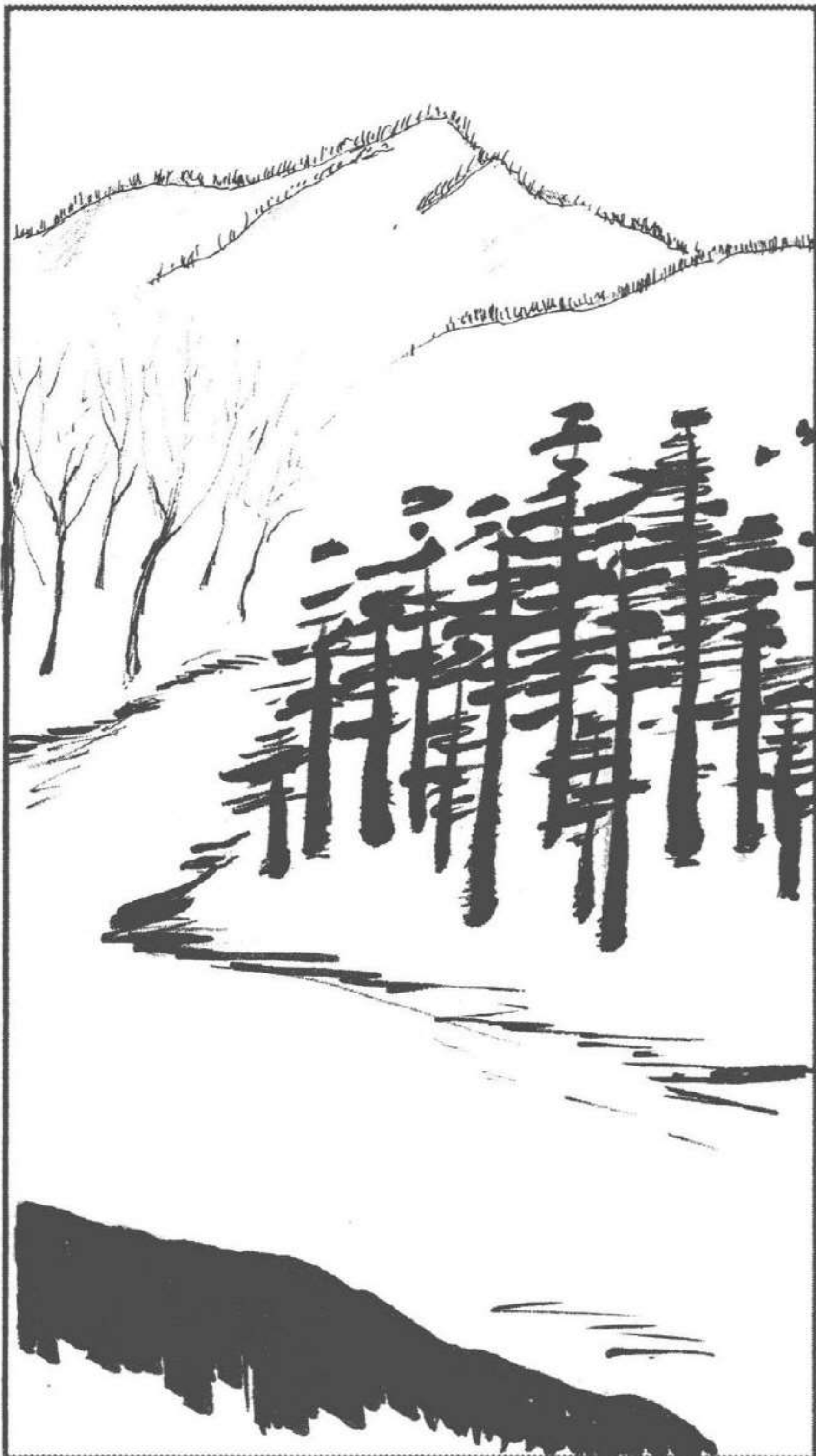
흘렀는지 보적 스님이 가시지요 한다. 오는 도중에 갈대밭 사이로 난길을 걷는데 갈대밭에 아주 작은 새들이 재잘거리니까 보적 스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밤새 어떻게 지냈니' 한다. 나는 앞에 오다가 아니 보적스님이 아는 아이들을 만났나 하고 돌아보니까 숲을 보고 그린다. 나는 저 스님이 아침에 참선을 하더니 정신이 돈 것 아닌가 하고 쳐다보니 보적 스님이 '정왜 스님, 저 새들은 올 겨울 추위를 어떻게 넘길까요?' 한다. 나는 보통때 포행하면서 새들이 있으면 그냥 있구나 했는데, 아니 새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는데... 자기 뿐만 아니라 남의 추위를 걱정해 줄 수 있는 마음,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도반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 초행

선용/치문



**결**망을 걸머지고 산문을 나서  
는 것처럼 설레이고 가슴이  
후련한 일이 있을까! 부처님 또한  
밤중에 성문을 나오셨듯이, 만행은  
대자유인을 꿈꾸는 모든 구도자들이  
한번쯤은 경험한 신선한 변화가 아  
닌가 싶다. 지난 11월 8일 법관,  
량림 그리고 나는 강원도 비탈길을  
향해 송광사 일주문을 나섰다. 결망  
을 진 뒷모습이 선방 수좌 못지 않  
았으리라. 다소 강원생활의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버스에 오르자마자  
이내 수마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차창 밖의 가을걷이가 끝난 벌판  
은 삭막하기까지 했고 이따금 경운  
기로 밭을 가는 농부들이 보였다.  
부지런히 땅을 일구며 자연의 순리  
에 따라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  
우리는 과연 저들의 공양을 받기에  
부끄럽지는 않은지 잠시 상념에 잠  
겼다.

아득한 대관령을 구비구비 돌아  
강릉에 도착했다. 너무 늦은 시각이  
라 부근 사찰을 찾을 겨를도 없이  
여관에서 짐을 풀었다. 이튿날 우리  
는 새벽같이 버스에 올랐다. 전날의  
피로가 좀 풀렸는지 법관 스님은 선  
문찰요를 보고 있었고, 량림 스님은  
낮선 이방인답게 무심히 해변의 풍  
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오전에 낙산사에 도착하여 점심공  
양을 하고 도반인 일음 스님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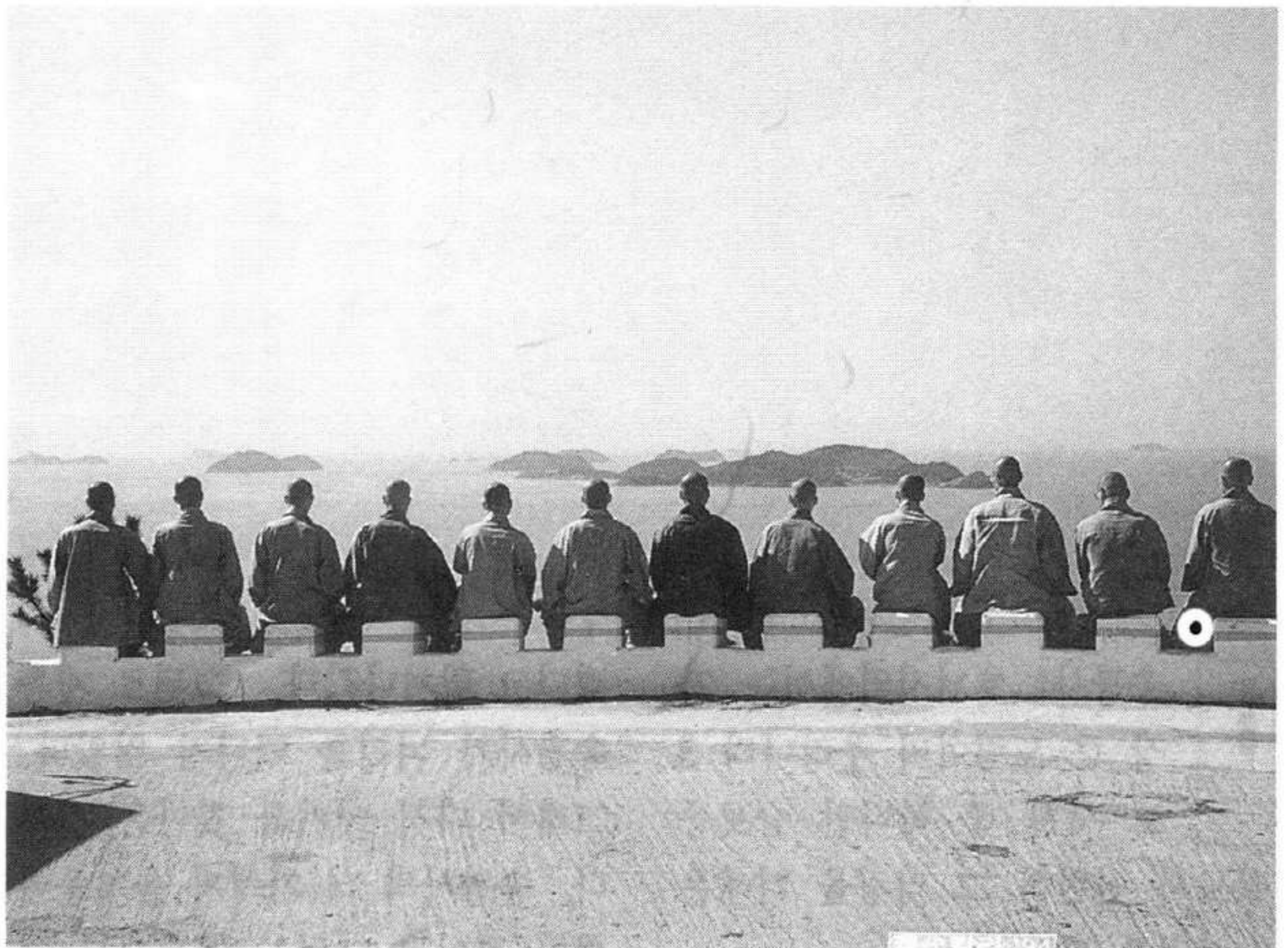
로 부근 암자를 참배하고 동해의 절경에 넋을 잃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보시라. 일출에서 부터 일몰까지 모두가 부처님법 아닌게 없을 것이다. 밖에만 나오면 일단 몸은 조복 받는가 보다. 랑림 스님과 법관 스님은 자정이 가까운 데도 계속 뭐라고 중얼거렸다. 자꾸 중얼거리면 내일 비가온다고 했더니 다음날은 정말 비가 새벽부터 오기 시작했다. 그 이후 두 스님은 중얼거리지 않고 종알거렸다.

우산도 쓰지 않고 터벅터벅 신흥사로 향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고 걷고 있는 우리가 안되어 보였던지 매표소를 지날 무렵 베이지색 승용차가 멈추며 타라는 시늉을 한다. 우리는 합장으로 사양하고 그냥 보냈다가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비좁아도 끼워서 타고갈걸... 비는 점점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 왜 이리 일이 꼬인담. 이번에는 내가 중얼거렸다.

비가 오기 때문에 봉정암 참배는 못하고 그냥 가기로 했다. 아쉬움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어느 보살님이 우리를 부른다. 아까 차 안에 타고 있던 보살님인듯 싶었다. 굳이 차대접을 한다기에 법당 옆 전통차 집에서 작설차를 마시며 잠깐 담소를 나누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강릉에 도착하여 소금강을 향해 떠났다.

소금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보면, 오대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율곡 선생께서 은둔하여 수도하였던 곳이기도 하며, 마의태자의 애환어린 전설이 깃들어

전날의 피로가 좀 풀렸는지 법관 스님은 선문찰요를 보고 있었고, 랑림 스님은 낮선 이방인답게 무심히 해변의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기암절벽과 폭포수가 쏟아지는 계곡은 가히 소금강이라 이름붙일만 하였다.

십자소를 지나 얼마 안가서 금강사라는 고요한 산사가 나타났다. 한창 불사중인데 비구니 스님들은 이곳에서 27년째 살고 있다고 하였다. 절 앞 개울에 있는 큰바위에 음각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어 내가 웬놈이 저런 몰상식한 짓을 해놓았냐고 했더니, 주지 스님이 율곡 선생의 글씨라고 해서 모두 한바탕 웃고 말았다. 주지 스님은 우리에게 객비를 주시면서 불사 중에는 이렇게 회향해야 불사가 원만히 이뤄지는 것이

니 부담갖지 말라며 열심히 정진하라고 당부하셨다.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강원도 산비탈을 뒤로 하고 우리는 얼마 안되는 바쁜 여정을 회향하기에 바쁘다.

돌아보면 초행길이 워낙 정신없어서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소리없이 와서 소리없이 떠나는게 행각의 참맛이 아닐까? 물처럼 바람처럼...



# 송광사에서

해만/치문

**1** 송광사! 호남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량이며 우리나라 3보 사찰 중 하나인 승보종찰로서 면면히 그 역량을 다해온 유서깊은 도량.

다른 어느 절보다도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또 청정함으로 근본을 삼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바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배우고 또 대중의 화합을 배우고 중물을 들이기 위해 조계산 자락에 자리잡은 송광사 불교전문강원을 찾아왔다. 객실에서 일단 일주일 정도를 지내고 방부를 받기로 하는 강원의 방침에 따라 결망을 풀었다.



송광사는 내가 처음 숙박출가한 곳이다. 삼개월 정도 행자생활을 한 후 혼자서 참선을 하

겠다고 뛰쳐나갔다. 그뒤로 계속 송광사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찾아온 것이다. 송광사의 터 자체가 음기운이성한 곳이라 그런지 객실에서 머무는 동안 졸음이 한없이 쏟아졌다. 그 덕분에 쌓였던 피로도 풀겸 많은 낮잠을 잤다.

7일이 지나고 큰방에 입방했다. 모든 스님들이 반겨 주셨다. 그 환한 반김 속에서 난 다짐했다. 절대 대중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오로지 수행자의 궤도로만 나아가자고.

2

치문반에는 봄학기에 먼저 입방한 스님이 열두 명, 가을학기에 나랑같이 입방한 스님이 열한 명이 있다. 어느덧 강원에 들어온

지 두 달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고 느낀점도 많다. 큰방에서 시간표대로 간경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 새벽으로는 간혹 졸때도 있고 다리도 많이 아프지만 배운 치문을 소리내어 읽고 다른 스님네가 맑은 목청으로 간경하는 소리가 듣기에 좋다.

원래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지만 차츰 아는 한자가 많아지니 경전공부가 재미 있어진다. 진득하게 앉아 있지 못하는 성미이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향상될 날이 있을 것이다.



## 3

강원 생활은 주로 공부를 하고  
운력이 있으면 전 대중이 모여 같  
이 한다. 들녘이 황금 물결로 출  
렁일 때 벼베기 운력을 나갔다.  
모두들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벼를 베었다. 벼베기 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한쪽의 그림을 보는 듯 아  
름답고 활기가 넘친다. 벼베기를  
끝내고 먹었던 점심 공양의 여운  
이 아직도 전해진다. 정말 달고  
달았다.

## 4

후원의 선열당 옆으로 흐르는  
개울물은 맑다. 돌돌돌 흘러가며  
마음의 때를 씻어준다. 마음이 무  
겁고 의 소침해질 때면 이 물소리  
를 듣는다. 바위에 걸터앉아 물소  
리를 듣노라면 잃었던 기운이 되  
살아난다. 송광사에 사는 한 아  
니 다른곳으로 가더라도 이 물소  
리는 가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새벽예불을 마치고 해청당으로 줄  
지어 올 때 문득 고개들어 하늘을  
보면 못별들이 잔잔한 빛을 머금  
고는 새벽하늘에 조금씩 뿜어낸  
다. 이런 청량감에 출가하여 수행  
자가 된 것이 새삼 행복스러워지  
고, 또 밝아오는 아침이 힘차다.

## 5

지난 가을 광주 시내로 강원대  
중이 탁발을 나갔다. 가사와 장삼  
을 수하고 어시발우를 가슴에 안  
고서 가는 탁발 행렬은 저 영산회  
상의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처럼  
여법해 보였다.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로 탁발행렬을 바라본다. 아  
름다운 구도자의 모습을 ...



## 6

우리 치문반의 지대방은 언제나  
생기가 넘친다. 그 속에는 승가의  
삶이 있고 여유가 있다. 오전강의  
가 끝난 후 차담시간에는 지대방  
이 묵언한다. 모두들 오로지 차담  
에 정신을 쏟아서 입으로는 할말  
을 잇기 때문이다. 차담이 끝나가  
면 서서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강원생활, 옛날의 큰스님  
이야기, 다른 스님들의 모양새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 등으로 조  
용하던 지대방은 왠지 지절 웃음꽃  
이 핀다.

지난 가을 광주 시내로  
강원대중이 탁발을 나  
갔다.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어시발우를 가  
슴에 안고서 가는 탁발  
행렬은 저 영산회상의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  
처럼 여법해 보였다.  
사람들이 신기한 눈으  
로 탁발행렬을 바라보  
았다.



## 편집후기

♣...강당에 막 들어온 지난 가을, 보원스님의 협박아닌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해청당'에 글 한편을 썼다. 제목은 '도상파편!' 아마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리라. 하지만 지금은 꼼짝없이 코페어서 편집후기를 강요받고 있으니 ...  
"아! 인생무상이라!"  
부처님이 어디 그른 소리 하신 걸 보았는가?

강원 스님들의 문집인 해청당은 이제 겨울옷으로 갈아입는다. 해청당은 이제 제법 성숙해져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햇중의 어설픈 티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강당의 치문반 스님들에게 부탁드리옵나니 다음호를 만들 때에는 부디 나에게도 원고를 맡겨주시길 바란다. (이번호 원고모집에 실적 0%, 보원 스님한테 구박 많이 받았음.) 새해에는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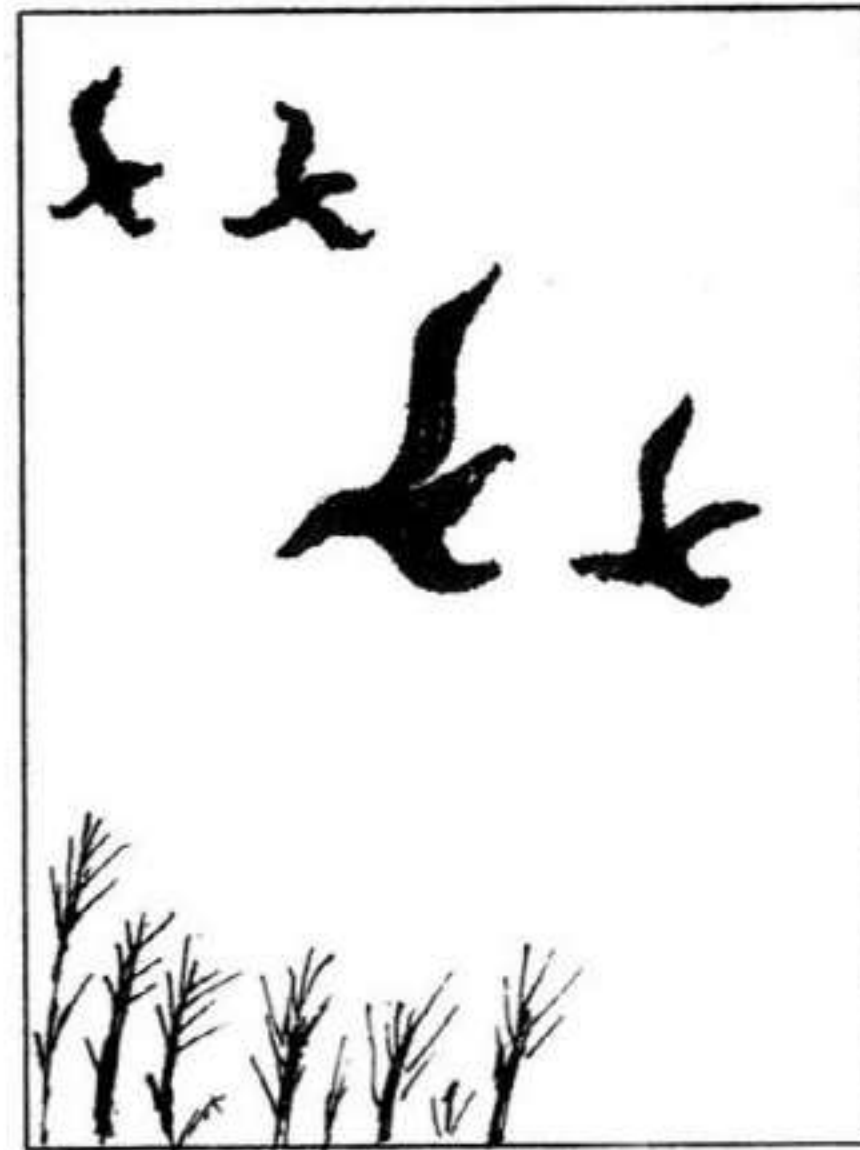
조계산은 지금 새하얀 눈이 뽀드득 뽀드득 밟히고 있다. 뭐 곧 해가 떠서 녹아내리긴 하겠지만 ...

설주

♣...매호마다 해청당이 몇일씩 늦어진다. 해청당 4호도 나 때문에 인쇄소에 늦게 넘겨졌다. 사진 선별도 그렇고

삽화도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항상 서두르고 있지만 막상 편집 마무리할 때면 사진은 많은데 쓸모있는 사진은 없고, 원고를 워드 작업할 때 떠오르던 삽화는 막상 붓을 잡으면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겠다. 편집하는 스님 모두가 해청당이 나오면 매번 아쉬워 한다. 이번 해청당도 약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한운



♣...가을 산철 결제를 끝마치고 저희 해청당의 편집일을 맡고 있는 보원, 한운, 설주 스님께서 멀리 부산으로 탁발을 다녀 왔습니다. 탁발금으로 좀 더 나은 해청당을 만들기 위해서이지요. 자갈치 시장의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생선을 팔고 계시는 노보살님들도 많이 보시하셨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의 정성과 수행의 여가에 틈틈히 좋은 글을 써주시는 여러 스님들 덕분에 해청당이 날로 발전해가는 듯합니다.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도선

♣...지금 밖에는 목화송이같은 함박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호에 함박눈같은 원고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푸짐한 원고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편집실 사정상 원고를 신지 못한 도제, 도성, 종지, 연수 스님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고, 물심양면으로 해청당을 도와주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정성을 다해서 한번 보고 쓰레통에 들어가는 잡지가 아니라 두고두고 읽고 싶은 해청당을 만들어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보원

♣...해청당을 만들기 시작한 지 벌써 한해가 되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일이라서 매번 잘못을 무더기로 범하곤 했다. 좀 더 좋은 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늘 부족하였다. 여러 스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한호 한호씩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제는 제법 갖추어야 할 만한 것들은 갖춘 셈이다. 신심단월의 보시로 매킨토시와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까지 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원고 기획부터 워드, 교정, 편집, 디자인, 사진까지 인쇄 전까지의 모든 일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다보니 시간과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해청당 일을 맡아주신 스님들의 노고와 대중스님들의 이해와 아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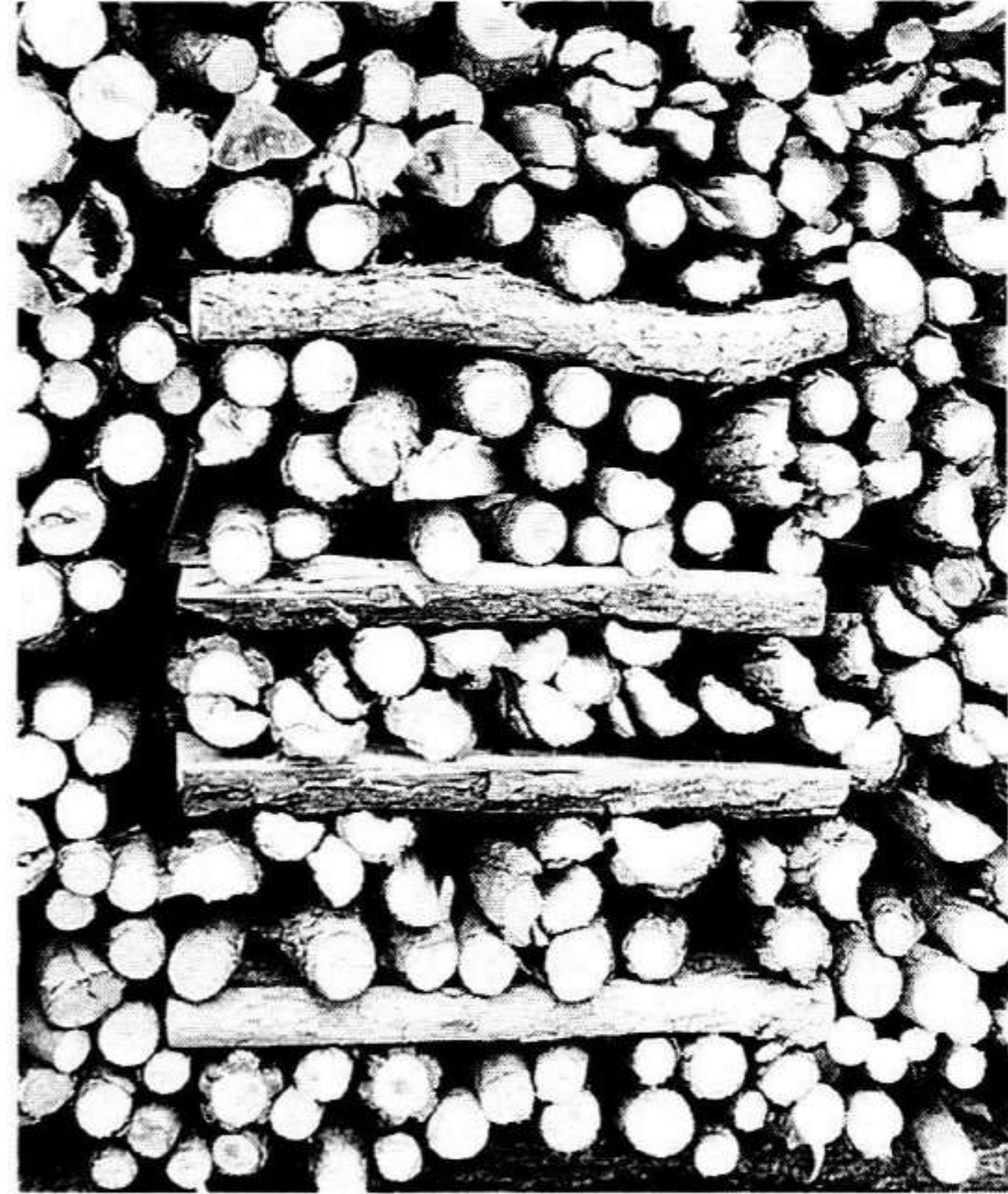


# 해청당 후원자를 모십니다

'해청당'은 기획에서 워드, 교정, 사진, 삽화, 편집, 디자인까지 오로지 학인의 손으로 하고, 인쇄만 외부에 맡기고 있지만, 매호 150여 만원의 경비가 듭니다. 보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학인이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혼탁한 시대에 한 점 수행의 향기를 전하고자 맨손으로 시작한 '해청당'이 깊이 뿌리내리고 알찬 깨달음의 열매를 맺어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나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번호로 입금하시고 해청당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해청당'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1676 - 0016222-12

예금주 : 강정신

해청당 편집실

주소

541 - 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송광사 불교전문강원

☎ (0661) 53 - 2133

##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원명(대구 관음사 주지), 지현(부산 관음사 주지), 범종(송광암 주지)  
현장(대원사 주지), 지묵, 대경, 적경, 정왜, 정묵, 도안, 송원, 범능스님  
대구 불일회 신도, 임한호, 윤래환, 정성태, 전희진, 유인석

후원하여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香壇白樹

國師님 심은 나무 님기닿다 늙었구나  
기달여 애타는 속 이끼 속에 싸였으라  
뵈장은 굳은 절개를 아는 이는 아느니

하늘 땅 주야사철 우로운도 입지 않고  
봄 겨울 오고가도 아랑곳 없을러니  
다물린 沈默의 모습 아는 이가 없어라

- 인암스님의 송광사순례시조집 중에서 -

## 고향수

송광사 내팔경의 하나. 보조국사가 심고 가신 나무. 죽은 나무지만 7백년이 지나도록 우뚝 서 있다.